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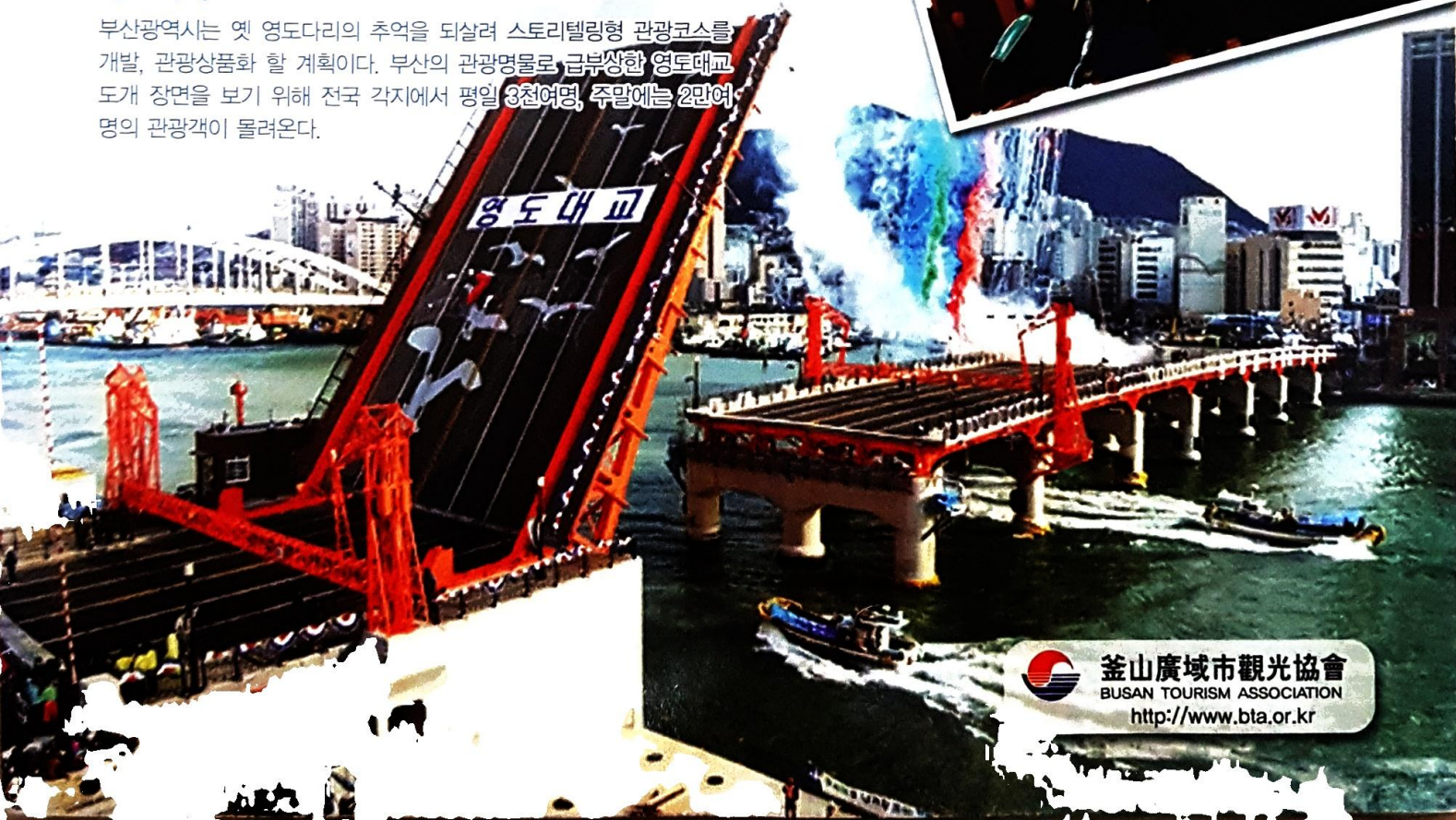
부산시관광협회

2014년도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시내 코모도호텔에서 개최 됐다.



영도다리

부산광역시에는 옛 영도다리의 추억을 되살려 스토리텔링형 관광코스를
개발, 관광상품화 할 계획이다. 부산의 관광명물로 급부상한 영도대교
도개 장면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평일 3천여명, 주말에는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온다.



일상탈출을 꿈꾸며 한 번은 가고 싶었던 곳들..
 귀여워서 놀라운 대한민국을 찾아 떠나는 풍격 여행...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2014년 춘계여행 하이라이트

여행 일자	여행 지역	여행비
3월9일(일) 당일	부산-창원 성주사-문신미술관-마산박물관-성요셉성당- 동영청미문학관-거제청마생가-장사도-거가대교-부산	어른 1인당 65,000원
		어린이 1인당 60,000원
3월16일(일) 당일	부산-거가대교-김영삼 전대통령 생가-지심도-공곶이- 비림의 언덕과 신선대-칠천량해전공원-부산	어른 1인당 59,000원
		어린이 1인당 54,000원
3월22일(토) 당일	부산-영산만년교-석빙고-관룡사-용선대-창녕박물관- 계성고분박물관-만옥정 공원-원동매화축제-부산	어른 1인당 45,000원
		어린이 1인당 45,000원
3월29일(토) 당일	부산-광양매화축제-섬진나루와 청매실공원-중흥사 3층석탑- 구례산수유축제-남원 신계리 마애여래좌상-부산	어른 1인당 45,000원
		어린이 1인당 45,000원
4월5일(토) 당일	부산-하동10리 벚꽃과 화개장터-성불사-광양 김시식자-남해대교와 충렬사-하동 대도섬 트레킹-부산	어른 1인당 59,000원
		어린이 1인당 54,000원
4월11일~12일 (금/토요일) 1박2일	부산-완도국제해조류박물관 개막식 불꽃놀이-청산도- 진도 울돌목-벽파진전첩비-용장산성 및 용장사- 운림산방 및 쌍계사-진도 향토회관 대공연-별교 보성여관-부산	2인1실 199,000원(어른) 194,000원(어린이)
		3인1실 194,000원(어른) 189,000원(어린이)
		어른 1인당 50,000원
4월12일(토) 당일	부산-괴산산막이옛길-화양동9곡-대야산 용추계곡-부산	어른 1인당 50,000원
		어린이 1인당 50,000원
4월26일~27일 (토/일요일) 1박2일	부산-진도 금골산-진도향토회관대공연-운림산방 및 쌍계사- 용장산성 및 용장사-벽파진전첩비-청산도-완도- 국제해조류박물관-부산	2인1실 199,000원(어른) 194,000원(어린이)
		3인1실 194,000원(어른) 189,000원(어린이)
		어른 1인당 45,000원
5월4일~5일 (일/월요일) 1박2일	부산-해남 두륜산케이블카-고산 윤선도종택 녹우당-대흥사- 일지암-북미륵암-달마산 미황사-땅끝마을 보길도 (세연정/동천석실-예송리 깃들해변)-땅끝마을-별교 보성여관-부산	2인1실 200,000원(어른) 195,000원(어린이)
		3인1실 195,000원(어른) 190,000원(어린이)
		어른 1인당 45,000원
5월6일(화) 부처님오신날	부산-문경 봉암사-백운대 계곡-용추계곡-괴산 화양동구곡-부산	어른 1인당 45,000원

※상기 일정은 여행약관에 따라 현지사정 및 참가신청 인원 미달시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함사항 관광버스비(44인승 기준), 2인1실 숙박비, 전일정식사비,
 전일정입장료, 케이블카비, 선박비, 자료집, 기사봉사로, 해설사비

불포함사항 여행자보험
 개인경비

- ★ 여행세부일정안내 : 인터넷 다음카페 (Daum Cafe) 박물관을찾는사람들 답사일정 참조
- ★ 참가문의: 박물관을찾는사람들 Tel. 051)463-9009 / 대륙항공여행사 051)463-0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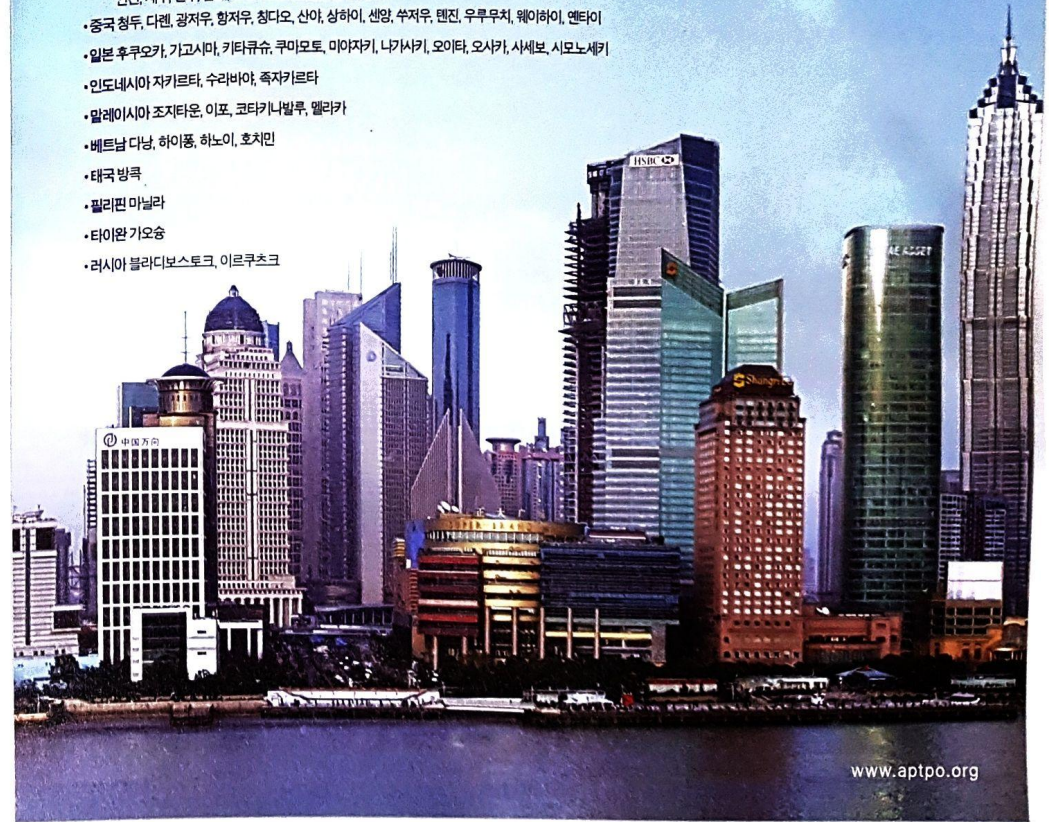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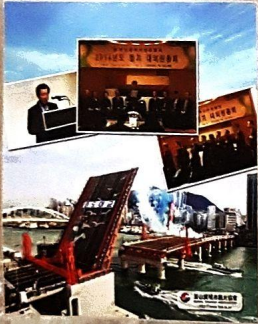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 안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창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아, 상하이, 선양, 우저우, 톈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시마, 기타큐슈, 쿠마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시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기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해식, 이광규, 김중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희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4년 3월 3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돌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사 동광동4가 18-8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l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부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표지 _ 부산관광협회 2014년 정기대의원총회

- 05 SPECIAL THEME / 부산관광협회 2014년도 정기대의원총회
- 08 지난해 부산 찾은 외국인관광객 중국이 최다
- 09 지난해 인바운드 1217만명,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1484만명
- 10 부산시, 부산형 야경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11 부산시민공원 건물,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탈바꿈
- 12 영도대교, 관광명소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관광코스
- 13 벅스코 올해 경영슬로건 '2014 함께 힘찬도약'
- 14 부산관광협회 관광식당업 관우회 매실 보육원과 협약식 가져
- 15 부산시민이 뽑은 부산관광지 1위는 해운대
- 16 마이스(MICE) 관련업체 부산에서 창업러시
- 17 지난해 부산시 선정 '시장 성과 베스트 10'
- 18 부산시민공원 4월 완공
- 19 북항재개발지역 원도심 활성화 위해 트램(노면전차)설치
- 20 감천문화마을 지난해 30만 명 찾았다
- 21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 전년 대비 10% 늘어나
- 22 아름다운 갈맷길 같이 걸어요
- 24 송도해수욕장 일대, 관광시설·테마파크 건립
- 25 송도공원~암남공원 간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재개
- 26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활용 방안 회의체 구성
- 27 부산의 상징 광안대교, 116천개 LED 조명으로 설치
- 28 중국인 관광객 유치위해 KTX, BPA, 에어부산 협력
- 29 '힐튼' 운영 랜드마크 호텔 4월 동부산관광단지내 착공
- 30 부산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31 올해 마리나호 등 134회 기항, 크루즈관광객 35만명 기대
- 32 분단의 이름이 서려있는 철원 DMZ, 여행 길에 오르다
- 37 봄·가을 관광주간 신설, 초·중·고 휴업 방안 추진키로
- 38 온라인 여행 사이트 후헬스컴비안, 트립어드바이저
- 40 부산시 2014, 5대전략과제 62개 사업 관광진흥계획안 마련
- 41 SPECIAL COLUM / 부산불교역사의 미스터리 애 만덕사지

2014년도 부산시관광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이태섭 회장 "부산관광회관 건립위해 최선 다할것"



부산시관광협회(이태섭 회장)가 지난달 28일 시내 코모도 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부산시 신용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근후 명예회장 그리고 전체 대의원 72명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섭 회장은 축사를 통해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관광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대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따뜻한 격려의 말씀의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장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2년째를 맞이하는 갑오년 올해, 저는 힘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하여 역동성을 갖고, 힘찬 말처럼 겁 없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도 공정한 경영으로 사무국을 채찍질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보다 활동적인 회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간에 우리 전 회원의 영원인 "부산관광회관" 건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대의원님 모두와 전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오늘 대의원총회는 지난해 우리

협회가 추진한 사업실적 보고와 이에 수반되는 회계의 결산 내역, 그리고 금년 2014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자세한 설명은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회원의 총의를 대신하는 뜻에서 대의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대의원총회가 진지하고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했다.

이어 박성하 사무국장은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실적에 대한 요약보고가 있는 후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등의자하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접수됐다.

의 / 결 / 사 / 항

(제1호 의안) 박성하 국장의 "2013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 후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 심의의결을 부처 부의했으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며, 결산안 내역을 별첨자료로 보고했다.

(제2호 의안) 협회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 심의부결을 거쳐 부의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내역은 별첨유인물로 보고했다.



2014년도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관광진흥사업

1.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종합권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문화체험장 등 이용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지역 여행업체 공동상품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비정기 노선 해외항공&크루즈 유치 인센티브
 - 국제 크루즈 입항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2. 부산 그랜드세일 행사 개최
 - 개요 :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와 소품, 관광 소비 극대화를 통한 부산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장소 : 해운대구, 중구, 동구, 부산진구 등의 관광특구 및 특화지역 중심
 - 내용 : 홍보물 제작, 각종 매체 홍보 및 이벤트(공연 등) 행사 쇼핑, 숙박, 식음료, 공연, 관광시설 등의 이용료 및 제품 특별할인, 사은품 증정 등

3. 연안크루즈 활성화 사업 실시
 -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 남해안의 지리적 여건과 소득증대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크루즈 관광의 점진적인 증대 예상
 - * 크루즈 관광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모색과 관광상품 및 컨텐츠 개발 등
 - * 2013부울경 방문의 해와 연계한 남해안 순환 크루즈 운항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유치도모
 - *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포럼 개최
 - 추진목표
 - *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크루즈 잠재 수요 창출
 - *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여행업계 경영 활성화 도모

4. 체험 및 의료 관광상품 개발 지원
 - 사업개요
 - * 우수 체험관광상품 발굴, 민속체험프로그램 육성지원
 - 울속도 에코센터 및 복원 습지, 천새전망대 탐방코스
 - 도자기, 김지단그기, 태깅스테인 등
 - 다양한 테마별 체험관광상품 발굴, "도요상설 전통민속 놀이마당" 개관 확대

- *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체험관광상품 개발 : 해양관광태아 중점 발굴
- * 외국인 선호 의료관광상품 개발 지원 : 인터넷, 홍보물, 팸투어
- 추진목표
 - * 풍부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문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 의료산업협회와 업무 제휴를 통한 의료 관광개 유치증대

5. 부산세계불꽃축제 홍보사업
 - 부산 세계불꽃축제 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 부산시의 계획에 따름

6. ECO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
 - 특화된 ECO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을 통하여 국내관광객 유치 도모
 - 부산시의 계획에 따름

7.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원
 - 부산광역시 주최 관광기념품 공모전 후원
 - 부산의 특화 관광기념품 개발 촉진

8. 부산관광사진 공모전 지원
 - 부산광역시 주최 관광사진 공모전 후원
 - 입상작품 관광홍보책자 및 포스터 자료 활용

9. 국내관광 교류협력 네트워크 운영 참여
 - 동남권 관광협의회 운영 참여
 -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참여

10. 산,학 협력사업
 - 관광관련학교 우수 졸업생 포상 사기 진작
 - 재학생 현장 배치 실습 지원

11. 협회 기능 및 운영개선
 - 협회위상 제고 및 회원 확대 주력
 - 효율적인 회원사 경영개선 도모
 - 협회 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증대

회원권익증진사업

1. 부산공동상품 개발 운영(국내외)
2. 관광인 자녀 장학사업 실시
3. 2013여행이용권(마우치)사업 실시
4. 항공권 발원 교육 실시
5. 회원사 노무관련 직무교육
6. 종합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컨소시엄 활성화
7.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한 광고계약
8. 여행업계 경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9. 관광숙박업 지원 강화
10. 관광식당업 육성 지원
11. 업종별 위원회 고위사업 개발 육성지원
12. 관광진흥추진대회
13. 관광호텔 등급심사 업무
14. 회원사 각종 실무교육 지원
15. 여행공제회 운영
16. 유관기관 간담회 활성화
17. 회원친목 증진업무 도모
18. 회원사 업무권의 및 관광정보자료 보급업무
19. 대정부 건의활동 강화

홍보 및 출판사업

1. 국내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활동
2. 외국 매스미디어 픽업(PICK UP) 홍보활동 전개
3. 협회 홍보지 발간
4. 관광법규집 발간(보충)
5. 업무자료 제작
6. 관광홍보자료 입수 배포
7. 방송, 신문 등 매스미디어 홍보활동 강화

국제협력사업

1. 2013 부산국제관광진(BITF)개최
2. 해외관광설명회 및 홍보마케팅 활동전개
3. 국내외 개최 관광박람회 부산 홍보관 운영
4. 해외인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5. 부산-후쿠오카 "아시아 게이트웨이 2013 공동캠페인" 추진
6. 부산인항 크루즈 환영행사 개최
7. 남동 동북아 국제 크루즈 지원
8. 국제관광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기여
9. 일본인 관광객 유치증대 진작 마케팅 활동 전개
10. 국제자매협회 친선교류회 개최
11. 국제자매협회 제철 확대
12. 국제자매협회 도시 시민교류방문단 유치사업 추진
13. 신규 국제항공사 증설 지원 사업 추진

14. 외국의 국제관광진 및 관광설명회 지원
15. 국제관광기구와 협력체제 강화
16. 국제관광인사 영입 및 간담회 개최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1. 관광안내소 기능 활성화
 - 종합관광안내소 : 종합관광정보센터 기능
 - 외국인서비스센터 : 1230 관광안내전화 운영
 -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국내선 관광안내소, 국제여객부두 관광안내소,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부산역 관광안내소, 고속버스 터미널 관광안내소, 부산종합관광안내소(남포동), 저가대교 관광안내소
2. 관광안내소의 업무기능 강화
 - 관광안내원 친절서비스 교육 등 소양교육 강화
 - 부산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에게 친절·신속한 안내를 불편해소
 - 국내·외에서 관광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인터넷활용)
 - 수동적·소극적 안내기능에서 능동적·적극적인 안내기능으로 전환

교육연수사업

1. 회원사운영 각종 실무교육
2. 관광종사자 서비스 직무교육
3. 친절현대서비스 교육

유관단체협력사업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의회와의 업무협력체제 강화
2.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제 강화

인보사업

1. 사회단체 관련 계도운동 참여
2. 이웃돕기 등 인보활동 전개

회의운영

1. 협회 기본회의 운영(대의원총회, 회장단회의, 이사회 운영)
2. 업종별위원회 운영
3. 전문위원회 운영
4. 기타회의 운영

수익사업증대

1. 협회 수익사업 개발 확대
2. 각종간행물 유료 광고 스폰서 확대유치
3. 회원사 업무혁신 장비관리
4. 자격증 발급수수료
5. 기타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협찬금 및 기부금

지난해 부산 찾은 외국관광객은 중국이 최다

아베정권 출범 후 일본관광객 전년동기 15% 줄어

지난해 중국인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비중에서 일본인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시장에선 중국인들을 겨냥해 관광인프라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큰손'으로 알려져 있지만, 면세점과 백화점 쇼핑을 선호해 부산지역 경제 기여도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소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부산 중구 광복동과 국제시장에선 "일본인이 줄어든 것은 느껴지는데, 중국인이 늘어난 효과는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지역상인들은 말한다.

최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261만 1천54명이다.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73만 9천84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인 관광객은 47만 8천59명으로 처음으로 2위로 처졌다.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는 엔화 약세와 아베 정권 출범 뒤 불편해진 한·일 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급감했다.

부산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대세시대'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 중 2009년 1위인 31.4%(63만 5천 명)에 달했던 일본인 관광객 비중은 해마다 줄어 2012년 23%(60만 1천 명)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15.8%(32만 명)에서 29.3%(59만 명)으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의 장기 불황과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고려하면, 이 같은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 2012년 부산관광실태조사 결과, 단체 관광객의 1인별 지출은 중국인 88만원, 일본인 75만 원이었다. 개인 여행에선 중국인 198만 원, 일본인 108만 원이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들은 수입이 부산지역이 아니라 서울로 가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쇼핑을 즐긴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 지역의 대형 매장에서 주로 쇼핑을 하다 보니, 중국인 관광객이 큰 돈을 써도 경제 기여도는 일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

진다.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지출 상당 부분이 역외 유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인 고객 감소에도 지난해 면세점업계의 매출은 평균 10% 가량 증가하는 등 백화점과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렸다. 또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국적별 국내 면세점 이용금액은 중국인이 8억 6천338만 달러로 사상 처음 한국인 이용액(8억 4천575만 달러)을 앞질렀다.

중국인 관광객의 지역 소매점 기피현상은 판매상들이 일본인을 겨냥해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국제시장 등에는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저렴한 상품이 많다. 게다가 여행사가 수수료 제공을 약속한 업체를 중심으로 쇼핑·음식·숙박 등을 정하고 있다 보니 지역 상인들은 외면받기 십상이다.

지역의 관광서비스도 부실하다. 중국인 관광객 대부분은 단체 관광객이지만, 수십 명의 인원을 수용할 마땅한 식당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지역 상인들의 대응도 언어나 문화적으로 서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매장의 고급화와 중국인을 겨냥한 관광 인프라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역 소매상들의 상품 다양화와 서비스 개선으로 중국인들의 지역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 중국인이 선호하는 인삼 등 고급 약재들로 특화된 상권을 조성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 연구원은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들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등 경제적 가치를 높이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12년 부산방문 중국인 단체패키지 여행객 소비패턴

그룹별 평균 총 경비	192만 원
중국 내 여행사 지불 비용	104만 원
숙박비	5만 원
식음료비	2만 원
오락비	5만 원
선택관광비	1만 원
쇼핑비	69만 원

자료 : 부산발전연구원 2012년 부산관광실태조사

지난해 인바운드 1217만명,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1484만명

인바운드 11.2%, 아웃바운드 8.1% 증가, 김해공항 444만명, 전년대비 10.8% 증가

한국문화연구원이 2013년도 관광동향분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인바운드 관광객은 1217만5550명으로 지난 2012년도와 비교해 9.3%가 증가했으며 해외로 떠난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1484만6485명으로 지난 2012년 대비 8.1%가 증가했다.

인바운드 관광객은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지난 2010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행업계는 매년 힘들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행객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바운드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일본관광객의 감소와 중국관광객의 증가다. 2013년도를 제외하고 국내 인바운드 시장의 가장 큰손이었던 일본관광객이 약 80만명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여행객 감소가 예상됐지만 중국관광객이 약 150만명 증가해 총 432만명으로 인바운드 1위는 물론 시장 전체의 볼륨을 키웠다. 또한 주요 방문국가인 미국, 홍콩, 필리핀, 러시아 등에서 관광객이 증가했으며 대만은 0.7%가 감소했다.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지난해 12월 120만4463명의 여행을 떠나면서 2013년 누계 1484만6485명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 일본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의 경우 인바운드는 물론 아웃바운드 여행객 모두 감소했다. 엔저현상으로 여행객 증가의 상승요인이 있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우려 등이 악영향을 미쳤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0월 중국 여류법 개정안 시행, 부정기 노선 규제에 따른 증가폭 둔화의 모습을 보였으나 LCC 운항의 2012년 대비 69.9% 증가, 중·일 관계 악화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반사효과,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정책·비자발급 간소화 등으로 여행객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여행객 증가에 따른 항공사실적은 양민항과 LCC의 회복이 엿갈렸다. 양민항의 경우 탑승률은 2012년과 비교해 0.9%가 감소한 반면 국내 LCC는 2%가 증가했다. 이러한 차이는 공급석을 기준으로 보면 더욱 도드라진다. 대한항공은 전년 대비 공급석의 변화가 없으며 아시아나항공은 4.2%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에어부산은 50%,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각각 3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지방 국제공항의 중국노선 이용객 급증으로 전년대비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김해공항은 444만명으로 전년대비 10.8%가 증가했으며, 제주공항은 44%가 증가한 155만명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공항은 양양공항으로 전년대비 62.9%가 증가했다. 반면 김포공항은 이용객이 전년대비 3.3%감소한 394만명으로 조사됐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은 전년대비 6.3%가 증가했으며, 특히나 환승객도 771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환승객은 유럽·대양주노선을 제외한 동남아·미주 등 전 노선에서 증가했다.

김우용기자

부산시, '부산형 야경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부산 야간명소 영화의 전당, 부산타워, 동백섬 등 13개소 선정

부산시는 '부산형 야경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황령산 봉수대를 야경의 대표적인 명소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오는 5월까지 봉수대에 심터와 전망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단체관광객이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대형버스 회차지를 조성했다. 현재 금련산 청소년수련원까지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봉수대까지 연장하고, 해운대와 광안리 권역을 도는 호텔 순환버스도 이곳까지 오도록 시내 호텔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항공과 열차, 야경 크루즈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시범 운영한다. '에어부산·KTX·롯데호텔·티파니'를 한 번에 즐기는 패키지 상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시는 영도대교 관광상품화사업의 하나로 영도경찰서 옆 건물에서 이곳을 향해 레이저쇼를 벌인다. 부평강동 야시장처럼 노점거리를 만들어 야간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일대에서 바라보는 용두산공원과 롯데백화점 등의 야경은 광안대교와 다른 색다른 맛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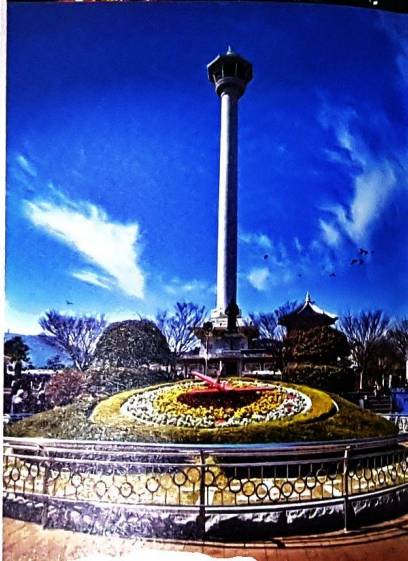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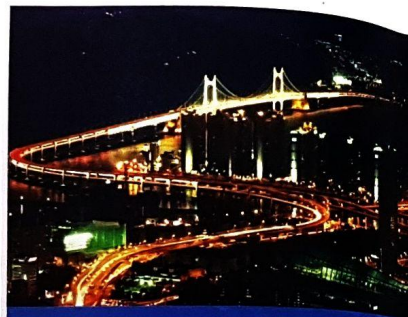
아울러 부산 야간관광명소에 '영화의전당'을 포함해 13곳을 선정했다. 여행상품을 개발할 때 13개 명소를 활용하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시는 부산형 야간

관광의 개념을 ▷시설탐방 ▷경관조명 ▷축제 ▷쇼핑 ▷시티투어로 잡고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가 지정한 야경관광 명소는 해운대 해수욕장, 황령산 봉수대,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광안리 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동백섬, 송도 해수욕장, 해운대마천루 카페거리, 이기대 동생말, 대대포 '꿈의 낙조 분수', 중앙공원, 영화의전당, 용두산 부산타워 등 13곳이다.

시는 경관 조영(광안대교, 해안대로 등), 축제(불꽃축제), 쇼핑(야시장과 아울렛 등), 시설탐방(영화의전당과 부산타워 등), 시티투어(투어버스와 유람선 등) 등이 연계된 소위 '부산형 야간관광 명소화'를 추진한다.

김대현기자



부산시민공원 건물,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탈바꿈

부산시는 4월말 개장하는 부산시민공원내 하사관숙소, 장교관사, 장교관사 앞 잔디광장, 켄셋 막사, 학교, 극장 등 보존 건축물과 안내소 건물, 중앙잔디광장, 옥상정원, 랜드마크 폭포 등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정식 명칭을 결정하고 이들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 활용방안을 확정했다.

시민공원 내 보존 건축물과 건조물은 미 하리아부대 부지 반환 후 남아 있던 전체 338곳 중 58곳. 보존 건축물 중 하사관 숙소 12개 동, 장교관사 2개 동, 장교관사 앞 잔디광장, 켄셋 막사 1개 동, 학교, 극장은 각각 '문화예술촌' '다솜관' '다솜마당' '뽀로로 도서관' '시민사랑채' '흔적극장'으로 명칭이 정해졌다.

문화예술촌으로 변신한 하사관 숙소 12개 동은 다양한 분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며 시민 대상의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12개 동 중 5개 동은 전문가들의 작업실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열린다. 또 2개 동은 아마추어 및 시민 작가들의 전시공간, 2개 동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 연습공간, 1개 동은 전시시설 및 소품 보관장소, 나머지 1개 동은 문화예술촌 관리 사무실로 각각 운영된다.

장교관사는 리모델링을 통해 다솜관, 장교관사 앞 잔디광장은 다솜마당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에서는 도시농업, 흙 정원 가꾸기, 자연물 공방, 곤충야카데미, 풍물 한마당, 건강교실, 시민공원 역사투어, 숲속어린이놀이터 등 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8개가 진

행된다. 다솜마당 주변 1천467㎡ 규모의 '참여의 정원' 163개 구역에는 시민들이 직접 꽃밭을 일구는 시민꽃밭이 조성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후쿠오카, 중국 상하이 등 부산시 자매결연 도시 기념정원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켄셋 막사 1개 동에는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인 뽀로로 조형물, 어린이책 1만여 권, 어린이용 책상 및 의자 등이 들어서는 뽀로로 도서관이 들어선다. 시민사랑채로 이름이 붙여진 학교 건물은 세미나실, 강의실 등 시민 대관공간으로, 극장은 100석 규모의 무대가 설치된 흔적극장으로 탈바꿈한다.

켄셋 막사 2개 동, 장교관사 1개 동, 사령관관사 1개 동은 편의점, 갤러리 카페, 숲속 북카페, 휴게실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공원 전체를 안내하는 신축 건물인 안내소는 방문자센터로 정해졌다.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의 방문자센터는 공원사 무실과 4D체험관, 가족놀이시설, 기념품판매소,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다솜마당 인근 신축 건물 옥상은 일몰 풍경이 아름다운 '노을 정원', 공원 중앙에 위치한 광장은 '하리아 잔디광장', 공원 내 랜드마크인 25m 높이 안공폭포는 '하늘빛 폭포'로 명칭이 정해졌다. 장교클럽 건물은 공원 역사를 담은 역사관으로 리모델링돼 1천100여 건의 자료가 전시될 예정이다.

이효영기자

부산시민공원 내부 시설 새 명칭 및 활용방안

기존 명칭	새 명칭	활용 방안	비고
하사관 숙소	문화예술촌	시민 문화 공간	12개동, 보존건축물
장교 관사	다솜관	시민 참여 프로그램 공간	2개동, 보존건축물
장교관사 앞 잔디광장	다솜광장	잔디밭·시민 휴식 공간	
켄셋 막사	뽀로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1개동, 보존건축물
학교	시민사랑채	다목적홀	보존건축물
극장	흔적극장	100석 규모 공연장	보존건축물
방문자 센터	방문자 센터	공원 안내소	신축건축물
중앙잔디광장	하리아아 잔디광장	시민 참여 광장	신축 시설
옥상정원	노을정원	시민 공원	신축시설
랜드마크 폭포	하늘빛 폭포	랜드마크	신축시설

영도대교, 관광명소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관광코스

자갈치시장, 감천문화마을, 초량이바구길, 1박2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유치하겠다는 복안. 영도대교 도개 시간에 유람선을 타고 다리 밑을 지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영도구와 (사)견고 싶은 부산등은 영도대교와 영도 해안 갈매길을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동삼동 중리 일대에 음식특화거리를 만든다. 특히 거리 입구 인종대에서 갈매길 스텝프를 수첩에 찍어오면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줄 방침이다. 영도대교에서 영도소방서 800m 구간과 부산대교에서 봉래교차로 500m 구간을 '영도 관문 상징거리'로 만드는 사업도 최근 공사에 들어갔다. 또 영도대교 관광자원화를 위해 2008년 이후 운행이 중단된 도선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부산시는 영도대교의 추억을 되살리고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관광코스 개발에 나섰다. 영도대교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잊혀져 있던 영도대교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인근 자갈치시장, 광복로 크리스마스트리축제, 부평강통시장 야시장, 영도 해안 갈매길까지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우선 영도 태종대 방면 시티투어버스가 영도대교를 지나도록 노선을 바꿨다. 기존 부산역을 출발해 부산대교를 지나 영도 태종대까지 가던 시티투어버스는 부산대교 대신 영도대교를 지나고 있다. 영도대교에 임시승강장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데, 영도대교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승객이 평소보다 30~40% 이상 늘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영도대교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정식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다. 영도대교에 얽힌 역사와 가슴 뭉클한 일화를 들려줄 문화관광해설사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배치할 계획. 관광객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영도대교를 걸어서 건너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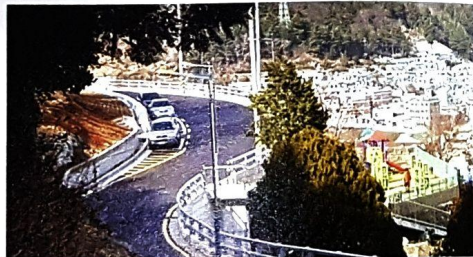
피란민의 애환이 서린 영도대교와 감천문화마을, 초량이바구길, 부평강통시장 야시장 등을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는 1박2일 체류형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피란시절을 겪은 60~80대 어른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복고마케팅'을 통해 관광객을

이 도선은 영도구 대평동~중구 자갈치시장을 오가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매일 일출 30분 후부터 일몰 30분 전(오전 8시~오후 6시 전후)까지 30여 분 간격으로 운항될 것으로 보인다.

아간에도 도개, 원도심 살리자

배재대 정강원(관광·이벤트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부산 중구청에서 열린 '영도대교 도개에 따른 중구 관광활성화 용역 중간 발표에서 "시민들로부터 점차 예전의 인기를 되찾고 있는 중구·영도구 일대가 한걸음 더 도약하려면 하루 한 번인 영도대교 도개를 아간에도 추가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용 기자



초량이바구길

부산시는 지난 한 해 색다른 문화체험을 선호하는 관광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감천문화마을, 낙동강 뱃길 복원, 부평강통야시장 개장 등 체험관광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관광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립에도 가시적 성과를 냈다

부산은 지난 한해 문화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온 힘을 모았다. 부산시립미술관·부산문화회관·부산박물관 등 문화시설 기관장을 민간전문가로 채용, 관주도 문화행정 시스템을 민간중심으로 전환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보도 빨랐다. 부산오페라하우스·국립아트센터·부산현대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가시화하는데 성공했다. 아시아 최고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 영화·영상 정책 핵심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 부산 이전을 마무리했다. 부산국제영화제·부산콘텐츠마켓·지스타 등의 행사도 역대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밖에 부산게임클러스터를 센텀문화산업진흥지구 내 조성, 게임콘텐츠산업 활성화도 일궈냈다. 부산영화투자조합 1호를

출범시켜 부산에서 영화제작과 배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 신성장동력인 영화·영상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국제 영상콘텐츠 밸리' 조성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는 데도 성공. 2020년 영상문화 메카 조성을 위한 큰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아시아 최고 MICE 도시 위상도 한 단계 더 높였다. 벅스코 인근에 관광복합시설 유치에 성공, 마이스복합지구의 초석을 마련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크루즈관광객 유치도 괄목할 성과를 올려 109회 28만명이 부산을 찾는 등 체류형관광상품 개발에도 성공했다. 색다른 문화체험을 선호하는 관광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감천문화마을, 낙동강 뱃길 복원, 부평강통시장 야시장 개장 등 체험관광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관광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 수립에도 가시적 성과를 냈다.

벅스코 올해 경영슬로건 '2014 함께 힘찬도약, 행사개최 1200건 목표 세워, 지난해 1천52건 행사개회

부산 벅스코가 동남권을 넘어 아시아의 대표 전시컨벤션센터로 도약할 것을 선언했다. 벅스코는 올해 경영 슬로건을 '2014 함께, 힘찬 도약'으로 정하고 국제회의 75건 유치 등 행사개최 1천200건, 전시장 가동률 50% 달성 등을 경영목표로 내세웠다. 벅스코는 주요 시설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 특히 국제행사 유치극대화를 위해 국제회의 기획가협회(IAPCO) 소속 해외유류 PCO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확대 추진하고 해외마이스산업 주최자 초청 토크쇼 및 설명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벅스코 주최 대표행사의 하나인 베트남 하노이 환경에너지산업전을 확대 개최하고 철도물류전, 해양플랜트전 등 해외진출 아이템을 본격 발굴해 글로벌 프랜차이즈 전시회로 키우기로 했다.

이밖에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종합해양레저박람회 육성을 위해 부산국제보트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벅스코 관련 행사에 지역 전시기획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새로 개발하는 각종 행사에 민간 전시기획자의 참여 기회를 늘려 지역 전시산업과 동반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벅스코 관계자는 "지난해는 부산의 전시컨벤션산업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해였고, 올해는 보다 공격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에 나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벅스코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벅스코는 2001년 개장 후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행사개최 건수 1천 건(총 1천52건) 돌파와 국제회의 72건 유치, 방문객 305만명이라는 역대최대 성과를 거뒀다.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광안동 소재 게스트 후? 이태섭 대표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장 수상 후 한창목 수영 사무서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부산시관광협회 관광식당업 관우회, 매실 보육원과 협약식 가져 정상남 관우회 회장, "나눔행사 지속적으로 제도화 할 것"



매실보육원 박진숙원장과 관우회 정상남회장 및 회원들과 기념촬영

부산시관광협회 관광식당업 위원회 내 관우회(회장 정상남 모두농원 대표)에서는 연말을 맞아 매실보육원과 협약식을 가졌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고 싶다는 회원

들의 뜻을 모아 후원행사를 갖기로 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 행사로 매실보육원(부산진구 당감동 소재)을 선정하여, 지난해 12월 19일 관우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선정된 매실보육원은 6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보육원으로 부산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의 방문에서는 회원들의 기금으로 마련한 후원금과 과자 등을 전달했으며 문영훈 회원(미동암소대표)이 소고기를 전달했다. 또 신년을 맞아 1월 17일에는 매실보육원생들과 직원들을 모두모두농원(정상남 대표)에 초청하여 사랑채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부산시민이 뽑은 부산관광지 1위는 해운대

부산시, 부산관광 실태조사 시민 5천668명 설문조사
해외여행 국가는, 일본 > 중국 > 태국 순



부산시민들은 해운대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첫 손에 꼽았다. 최근 1년 사이 가장 기억에 남는 국내 여행지는 '제주도', 해외여행은 '일본'을 가장 많이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시민 5천668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관광실태 조사결과,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해운대(29.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광안리(10.6%), 태종대(10.0%), 자갈치(9.3%), 바다(8.2%), 국제영화제(2.9%) 등의 순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해운대(24.3%), 태종대(10.8%), 광안리(9.2%), 기장해변(6.3%) 등이었다.

시민 가운데 '부산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2%(4천830명), 당일여행 동반자는 '3명 이하'가 47.9%로 전체의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교통수단은 자가용(58.8%), 시내버스(24.2%), 도시철도(13.2%) 등의 순이었다.

부산 이외 국내도시 여행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1.6%가 '있다'고 답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국내 여행지는 제주도(11.4%), 경주(8.6%), 거제도(7.3%), 서울(4.9%), 울산(3.4%)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6.0%(907명)의 부산시민이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16.8%)이 남성(15.1%)보다 여행경험이 더 많았다. 해외여행 횟수는 1회(75.2%)가 가장 많고 2회 17.8%, 3회 5.1%, 4회 이상 2.0% 순이었다.

해외여행 국가는 일본(28.6%)이 중국(23.3%)보다 약간 많았다. 태국(10.7%), 필리핀(9.9%), 베트남(6.4%) 등의 순. 여행목적은 여가·관광·휴가(74.3%)가 주된 이유였다. 1인당 평균 여행경비는 51만원~100만원(41.1%), 101만원~150만원(20.9%), 251만원 이상(12.2%) 등의 순이었다. 향후 1년 이내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2.3%로 조사됐다.

현재, 부산지역 관광사업체수는 1천143개로 전년 1천87개보다 56곳이 증가 했다. 관광사업체 종사자수는 1만3천769명, 성별로는 남성 6천979명(50.7%), 여성 6천790명(49.3%)으로 남성의 비율이 1.4%p높고, 연령별로는 30세 이상~40세 미만이 4천443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김무용 기자

마이스(MICE) 관련업체 부산에서 창업러시

최근 부산지역에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 총칭) 업체들이 잇따라 설립되고 있다. 최근 부산관광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시기획업체를 비롯해 국제회의기획업체, 여행사 등 마이스 관련 업체들이 부산에 신규 또는 지사 형태로 잇따라 문을 열고 있다.

컨벤션 및 전시 등 기획업체인 '비젠'이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자리를 잡았다. 비젠은 서울 소재의 대형 기획업체다. 비젠은 마이스 관련 콘텐츠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새로운 콘셉트의 마이스 콘텐츠를 기획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펼쳐 해외관광객의 부산 유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젠은 비슷한 시기에 마이스전문 여행사를 출범한 (주)여행FUN(핀)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펼칠 계획이다.

서울 전시·컨벤션기획업체인 '코드피플'도 이달 초 부산지사를 설립해 '부산 업계 키우기'에 나섰다. 코드피플은 야구 전문전시회인 '야구체험스토리'를 개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포상관광 전문 여행사인 제인투어&DMC는 올 초 부산지

사를 개소했으며 서울 마이스업체인 비엠디는 지난해 하반기 부산지사를 설립했다.

지사 설립을 추진하거나 기존 지사의 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ITU·전권회의 등 다수의 대형 행사들이 부산에 열리는 데다 크루즈 등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지사 설립을 타진 중인 업체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2014년 마이스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계획 발표

부산시는 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14년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 지원계획'과 '신규국제회의 개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2014년 마이스 지원 사업은 전시회 대형화와 국제화 기조에 맞춰 지역 마이스 업체 육성과 신규 전시회 지원 등 지역에 기반한 전시산업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역 업체에서 기획 또는 주최하는 '신규 국제회의 개최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국제회의 개최지원 사업'은 부산에서 국제회의 기획업을 하는 업체가 신규로 개발한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업체들이 실질적인 행사 준비를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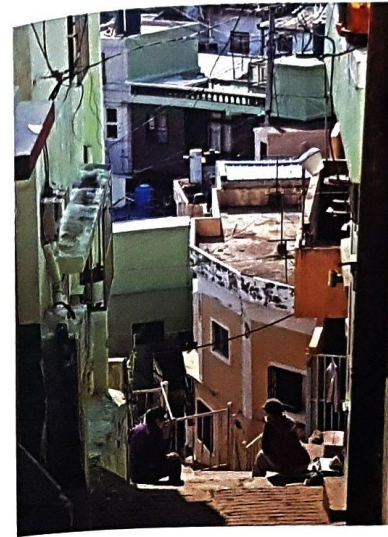
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민간주관 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은 제1분야(전시회)가 주업종인 지역 PEO(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국제전시 기획업체)지원, 제2분야(지역과 공적(준공공적) 성격이 강한 PEO 지원) 등 2가지로 나눠 진행되며 제1분야에 전체 지원금의 50% 이상이 배정되도록 했다.

사업비는 4억7천만원이며 전시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해 제1분야에 한해 전시회에 부대하는 국제회를 개최하면 심사를 통해 2천만원 이내에서 해외 마케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산시 선정 '시정 성과 베스트10'

산복도로르네상스, 영도대교, 부산시민공원, 부평동 강통야시장 순



부산시는 최근 시민과 언론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2013년 부산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주요 시정 성과 '베스트 10'을 선정 발표했다.

베스트 10의 1위에 오를 '세계가 주목하고 수능에 출제된 산복도로 르네상스 세계적 롤 모델로 우뚝'은 전국 최고의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로 뽑혀 '2013 대한민국 지역발전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며 '부산지역 산복도로 조망 9경 선정' 등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이 줄을 잇고 골목상권이 살아나게 하는 등 희망마을로 변신시키고 있다. CNN, 르몽드 등 국내·외 주요 언론사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2014학년도 수능문제로 출제되기도 했다.

2위 '영도대교 신개통, 47년 만에 도개'는 일제 감정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이산과 실항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추억의 장소이자 근대사의 중요한 자산이 됐던 영도대교가 47년 만에 다시 들어올려지는 기능을 갖고 재개통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3위 '세계적인 명품, 부산시민공원 대역사 마무리'와 관련, 100년 만에 부산시민의 품에 돌아온 미국 하리아리부대 부지가 세계적 명품 도시공원으로 조성돼 4월 개장한다.

4위는 '전국 최초 상설야시장 부평강통야(夜)시장 개장'이다. 지난 10월 문을 연 야시장이 관광은 물론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야간 관광명소로 재탄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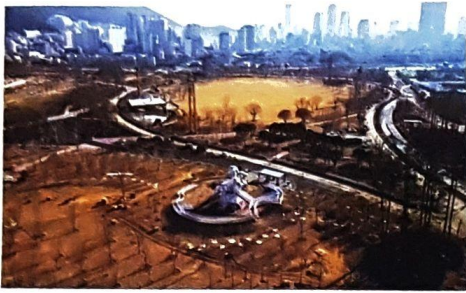
5위는 171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학교·재난 등 6대 안전분야 시민안전 증진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이룬 '광역시 단위 세계 최초 WHO국제안전도시 공인'이 차지했다.

6위는 지난 6일 최첨단 LED 조명의 새옷으로 갈아입은 '광안대교, 세계 최고 야간경관 명소화'가 뽑혔다. 또 7위 '거가대로 사업재구조화 성공, 5조 3천억 원 절감', 8위 '영상 관련 3개 공공기관 이전 영화·영상산업 부산시대 개막', 9위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본격 조성', 10위 '낙동강 생태공원 전면개장'이었다.

이효영기자



부산시민공원 4월 완공, 부산시민 품으로...



다음달 4월이 되면 옛 하야리아 부대가 부산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부산시민공원 안에는 하야리아 부대 당시의 하사관 숙소와 컨셉막사, 장교 관사, 사령관 관사, 학교 등 23개 건축물이 보존된다. 문화예술 체험공간이나 전시장, 북카페, 시립박물관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장교클럽은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역사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역사관은 일제강점기의 서면경마장과 한국전쟁 당시의 기억, 하야리아 부대 인근 주민의 생활사, 부지 반환 운동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부산시민공원과 관련된 근·현대사의 역사자료를 발굴·조사하고, 전시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공원의 역사와 정보를 제공한다.

방문자센터와 쉼터 등도 신축된다. 또 시민공원 안에는 분수대와 폭포, 부전천 전포천 등 동천 지류에 수경시설도 들어섰다. 부산의 문화예술 수준을 끌어올릴 문화예술존도 기대를 모은다. 부산시는 개장을 앞두고 대규모 기념행사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매년 벅스코에서 열리던 제10회 도시농업박람회를 중앙진디광장에서 오는 4월 말 개최할 예정이며, 부산가족축제와 외국인 어울마당 등도 시민공원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상현광장 5월 완공, 부산시민 품으로...



5월이 되면 시민 삶의질을 한단계 높이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어울릴 열린공간 송상현광장이 시민품으로 돌아온다. 송상현광장이 들어서는 곳은 예전 송상현 동상이 있던 부산진구 양정동 송공삼거리에서 전포동 삼전교차로까지의 구간이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던 8차로의 중앙대로 자리에 들어서는 광장은 길이 700m, 폭 45~78m, 전체 면적 3만4740㎡로, 길이 550m, 폭 34m로 1만8000㎡인 서울 광화문광장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다.

송공삼거리에서 서면 방향의 기존 8차로 도로를 송상현광장 양옆으로 변경해 광장 남쪽은 4차로, 북쪽은 7차로 규모의 새 도로를 개설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광장 조성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송상현광장은 송공삼거리의 동상 자리 인근이 역사 체험 및 기념공간인 '역사마당'으로 조성되고 여기서부터 서면 방향으로 시민의 활동과 휴식 공간이 될 '다이너믹 부산마당', 공연과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문화마당' 등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8600㎡ 넓이의 역사마당은 고지도 모양을 본뜬 바닥수와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였던 송상현공 동상 기념광장, 모더니티 고개를 재현한 역사의 숲으로 구성된다. 1만 5750㎡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다이너믹 부산마당에는 잔디광장과 화강암 판석을 깔 포장광장, 산책로 등이 들어서고 거리원형이나 시민행사, 루미나리에 축제 등 대규모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 공간으로 활용한다.

북항재개발지역 원도심 활성화 위해 트램(노면전차) 설치로 관광효과 기대

부산 북항재개발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BDI)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노면전차) 도입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 '북항재개발 2단계 주변지역 개발구상' 용역 중간보고에서 북항을 비롯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 일대를 해양경제특구와 연계한 해양플랜트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BDI 용역 결과 북항재개발 2단계부지를 포함한 영도구, 중·동구 일대 원도심 지역에 도입해야 할 기능으로는 '신해양사업'이 꼽혔다. 전문가 조사 결과 그 중에서도 해양플랜트, 해양과학기술, 해양에너지의 미래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개발 방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북항재개발 2단계 부지의 경우 GE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 위한 전략적 부지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북항재개발 지역 내를 관통하는 도로의 경우 기존에 계획된 차로와 모노레일 설치 계획보다 트램 도입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램의 경우 km당 건설비가 200억~250억 원으로 모노레일(450억~600억 원)의 절반에 그친다는 것이다.

북항 일원을 중심으로 트램을 도입해 영도에서 출발해 경성

대·부경대에 이르는 신고통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관광효과가 극대화 되고 대학로 접근성까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북항재개발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에 연결할 '교량' 설치로 조폐 위기에 놓인 물양장(소형선 부두) 기능 유지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산역~북항을 연결 데크의 경우 단순 데크 형식이 아닌 광장 형태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폭 200m, 길이 500m 규모의 보행광장 설치로 녹지축과 경관축까지 확보할 경우 서울 광화문광장 같은 상징광장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북항재개발지역 일대 조감도. 부산역으로 이어지는 상징광장이 포함돼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김해시 공동으로 가락국 허황옥 왕후 신행길 관광상품화 만든다

부산과 김해시가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왕후인 인도 허황옥 공주의 신행길과 관련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이 관광상품은 '허황후 신행길 재현 및 축제화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TPO는 이 상품의 개발 방향 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김해시에서 열린 축제추진 협의회에 보고했다.

TPO가 이날 협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오는 5월 초까지 허황후가 인도에서 김해로 온 이동경위와 경로, 허씨의 분파 과정, 최초 불교유입과정 및 의복, 유적지 등 허

황옥과 관련된 연구 및 스토리텔링을 완성하게 된다. 이후 6월에는 이 사업의 핵심상품인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국제결혼을 주제로 한 '허황후 신행길' 재현행사가 열린다.

인도 아유타국에서 김해로 온 허황후 신행길의 기본 코스는 창원시 진해구 망산도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유주암을 거쳐, 김수로왕과 초례를 치른 장사로 알려진 부산 강서구 지사동 명월산에 있는 홍곡사, 김수로왕릉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열린다.

부산의 새로운 명소 감천문화마을 지난해 30만 명 찾았다



감천문화마을은 2009년 이후 빈집을 활용한 예술공간 16개를 만들고, 건축가 송효상 씨 등 국내외 건축가 4명이 예술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됐다.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 지난해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사하구청은 지난해 감천문화마을 방문자 수가 총 30만 4천9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람객은 2011년 2만 5천126명, 2012년 9만 8천348명에 비해 최대 1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외국인 관람객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은 3만 1천244명으로 총 방문객의 1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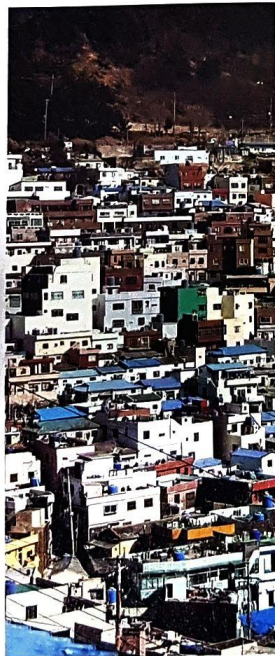
감천문화마을 체험형주택조성으로 외지 관광객 유치

르네상스 사업을 바탕으로 문화마을로 급부상한 감천문화마을은 '비즈니스센터'와 '체험형주택'을 조성해 주민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유형의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부산시는 총 사업비 17억5000만 원을 투입해 감천문화마을에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부지를 이미 확보했으며,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지상 2층 규모(부지면적 1783㎡, 건축면적 595㎡)의 비즈니스센터를 내년 1월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감천문화마을 일대 폐·공가 7개 동을 매입해 '체험형주택' 조성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에는 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체험형주택은 6.25전쟁 당시의 피란민 생활상 등 문화와 역사가 남아있는 독특한 장소성에 예술을 더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1960, 70년대 생활체험 민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과거 생활상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체험형주택은 부산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감천문화마을의 특성을 살린 이색적인 '홈스테이' 형태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다.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 전년에 비해 10% 늘어나

지난해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가 전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나면서 김포공항 이용객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항공운송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지난해 444만 1천여 명이 이용했다. 이는 전년도의 400만 8천여 명에 비해 10.8% 증가한 것으로, 국제선 이용객 수에서 인천공항에 이어 2위에 올라섰다.

기존 국제선 이용객 수에서 김해공항에 앞섰던 김포공항의 경우 지난해 394만 3천여 명으로 전년도 407만 7천여 명에 비해 3.3% 감소했다.

국제선 이용객 수는 중국인 비자발급 간소화, 저비용 항공사의 해외 근거지 노선 확대 등으로 중국(16.6%), 동남아(9.5%), 유럽(6.9%) 등 전 지역에서 증가했다. 일본 노선은 엔화 약세와 방사능 우려 등으로 5.0% 감소했다.

국제선 여객 분담률은 국적사가 65.2%로 외국항공사가 (34.8%)의 1.9배 수준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국적사가 55.6%를 차지했으며 저비용 항공사는 2.1% 포인트



증가한 9.6%를 기록했다.

국내선 여객은 지난해 2천235만 명이 이용돼 3.5% 증가했다. 대형사는 51.8%, 저비용 항공사는 48.2%를 차지했다. 국제 화물 수송량은 325만으로 1.2% 늘었다.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 수는 전년도보다 6.9% 증가한 5천99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이처럼 김해공항의 이용객이 늘어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적 항공권 예약시점은?

저렴한 시기는 3월, 비싼시기는 1월, 출국 6주전에 예약 필수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는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출국 6주 전에 예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최근 3년간 전 세계 스카이스캐너 사이트를 통해 항공편을 구매한 수천만건의 내역을 분석한 '최적의 항공권 예약 시점(Best Time To Book)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동일한 조건의 항공권이라도 6주 전에 예약해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출국 6주 전 항공편 구매 시 평균 3.9% 가량 비용이 저렴했다.

스카이스캐너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월평균 2500만명의 순방문자 가운데 실제 항공권을 구매한 56%의 고객들의 발권 내역을 모두 취합하여 정밀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단순히 항공권 가격비교가 아니라, 실제 여행자들이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권 가격비교를 위해 실제 구매한 항공편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름다운 갈매길 같이 걸어요!



1코스(33.6km, 10시간)

임랑해수욕장 ~ 칠암 ~ 일광해수욕장 ~ 기장군청 ~ 대변항 ~ 해동용궁사 ~ 문탠로드

예부터 아홉 개의 포구가 있어 기장구포로 불렀는데, 화사읍포(火士邑浦)고리, 월내포(月來浦)~월내/임랑, 독이포(禿伊浦)~문오동(文五洞)/칠암/신명, 동백포(冬栢浦)~동백, 기포(基浦)~이동, 이음포(伊乙浦)~ 일광/이천, 무지포~대변, 공수포(公須浦)~공수, 가읍포(加乙浦)~송정을 말한다. 대변 고개를 넘어서면 매년 4월 말치축제로 성황을 이루는 대변항이 있고, 연오랑세오녀의 전설이 깃든 오랑대와 벗어나 기장 팔경의 하나인 시랑대가 동해 최남단 관음성지로 알려진 용궁사와 같이 있다. 송정해수욕장을 지나 수령 3백살의 해송이 반기는 구덕목, 청사포가 있고 내려서는 고갯길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백만 불짜리인 미포가 걷는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한다.

2코스(18.3km, 6시간)

문탠로드 ~ 동백섬 ~ 민락교 ~ 광안리해수욕장 ~ 이기대 ~ 오륙도유람선선착장

대한팔경의 한 곳으로 볼수록 정이 있는 해운대의 저녁달과 백만 피서객으로 발 디딜 틈 없는 국내 최대 해운대해수욕장이 청춘의 바다 광안리해수욕장과 이웃하고 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의 아강이 끝나는 곳에 염전이 있던 분포를 넘어서면 새로운 바다가 열리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해안 절경 이기대가 반긴다. 치마바위의 호탕함과 박골새 사이로 울러오는 파도 때, 그리고 농바위에서 오륙도 쪽 정경은 이기대의 진수다. 새때골을 넘어서면 명승 제24호 오륙도가 수평선을 배경으로 성큼 다가선다. 오륙도는 물로부터 방패섬-솔섬-수리섬-송곳섬-굴섬-등대섬(발섬)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방패섬과 솔섬이 물때에 따라 썰물이면 하나로, 밀물이면 두 개로 분리되어 5개 또는 6개의 섬이 되는 현상에서 오륙도라고 불린다. 남해와 동해의 분기점이다. 이 코스는 '부산시 슬로시티 관광명승'로 지정되었다.

3코스(37.3km, 13시간)

오륙도 유람선선착장 ~ 부산전시장 ~ 국제시장 ~ 남항대교 ~ 태종대 유원지 입구

산신이 노닐던 신선대가 웅장한 부산항의 파노라마를 보여 준다. 1796년 이곳을 방문했던 영국 함정 '프로비던스' 호의 사연을 기리기 위해 만든 앤드루왕자길을 따라 내려서면 세계에서 하나뿐인 UN기념공원이 있다. 지척에 부산 박물관이 있고, 실제 현장은 우암동 장고개를 넘어 영화 '친구'로 유명한 문현동 골목에서 자성대, 진시장, 청공단, 중산으로 이어지는 산복도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역으로 내려서면 옛 부산 초량 해안선을 따라 차이나타운과 영선고개를 넘어 피난시절의 애환이 서린 40계단으로 이어진다. 대청로를 건너면 백산 기념관과 용두산 타워가 있고, 일대는 400년 한이 서린 후호의 땅인 왜관 터로서 골목마다 없는 것이 없는 국제시장이다. 남포동 극장가를 넘어서면 부산 시투리 자갈자갈 좌판 가득 넘쳐나는 자갈치시장을 지나면 6.25 전쟁 때 피난민의 추락과 애환이 서린 부산 최초의 연륙교인 영도대교를 만날 수 있다. 해안가로 길을 재촉하면 해안을 깎아 세운 듯한 절벽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굽어차는 파도와 더불어 절경을 이루는 절영해안산책로와 태종대가 있다.

4코스(36.3km, 13시간)

남항대교 ~ 암남공원 입구 ~ 감천항 ~ 두송반도 ~ 물운대 ~ 낙동강하굿둑

남항대교를 건너며 바라보는 원경의 스카이라인과 남항의 흥등대와 백등대 인공 원도심과 자갈치 인근의 근경은 남항대교가 제공하는 팁이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송도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해수욕장으로 한때 한국 최고의 피서지였다. 이웃한 암남공원까지는 바닷물이 출렁이는 해안 산책로를 통해 열정소가 있는 모지까지 연결되며 감천사거리를 지나 감천항을 만난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군 주둔지, 한국전쟁 때는 영국군 국방강비대(국군)의 전산기 주둔했던 역사적인 곳이었다. 주송 두송반도를 임주하면 해안지형의 백화점인 다대포에 낙동강과 남해가 반긴다.

5코스(42.1km, 13시간)

낙동강하굿둑 ~ 명지오션시티 ~ 천가고 ~ 연대봉 ~ 어음포 ~ 동선방조제 ~ 정가생태마을 ~ 천가고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가로질러 명지 갯벌에 도래하는 겨울 철새의 군무를 구경 그 어떤 곳보다 가까이 볼 수 있다. 신호대교를 건너면 낙동강 진우도와 저면의 뒤편 거덕도의 풍광이 뛰어나다. 뚝뚝 심을 정도다. 녹산 해안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위풍당당한 부산산행이 반긴다. 고창마을 같은 정겨운 골목길을 걷다 선창을 가로 삼복마을로 돌아서면 대원군척화비가 있는 천가초등학교가 있다. 연대봉에 올라서면 대마도가 지척이고 만경향도 남해가 시원하다. 육수정방 송어잡이로 유명한 대항에서 외항쪽 쪽으로는 가덕도대와 일본군 포진지가 온전히 남아 있다. 해안 숲길로 이어지는 누릉능, 어음포의 비경과 동선새바지가 나온다. 석화할 위로 도요물떼새들이 비상하는 날, 정가생태마을을 돌아 나온다.

6코스(36.2km, 11시간)

낙동강하굿둑 ~ 삼락생태공원 ~ 삼락 I.C ~ 구포역 ~ 운수사 ~ 백양대 ~ 성지곡수원지(어린이대공원)

삼락에서 갈매밭 사이를 걷는 비포장 들길이다. 어느 계절을 걸어도 운치가 있는데, 가을날 오후 옅은 햇살이 사방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때가 가장 좋다. 백양산으로 이어지는 2구간은 일부 급경사의 난이도가 높은 코스다. 천년 고찰 운수사와 선암사 구간은 임도로 조성되어 있으며, 바람고개를 넘어 백양대에서 조망하는 수원지 경관이 일품이다. 관력 숲이 울창한 성지곡 수원지는 동천의 발원지로 조선의 지관 성지(聖地)가 발견한 명당으로 여부터 한국의 명수로 이름난 데다 우리나라 최초의 돌블임 콘크리트 중력식 덩으로 집수와 저수, 침전, 여과까지 향한 도수로 등이 거의 일행 그대로 보존된 수원지이다. 대한제국 융희(隆熙)3년에 완공되었으며 등록문화재 제276호로 지정되어 있다.

7코스(22.3km, 9시간)

성지곡수원지(어린이대공원) ~ 만덕고개 ~ 동문 ~ 북문 ~ 범어사 ~ 노포동버스터미널 ~ 상현마을

성지곡수원지 삼나무와 편백 숲길이 들어머리다. 백양산 갈림길에서 한국산개구리 보호지역 심야산 솔길을 지나, 승전탑이 있는 능선을 따라 만덕고개로 향한다. 금강공원으로 오르는 길에서 뒤돌아보면 사방하면서 흐르는 문현천과 동래구 일원의 도시경관을 볼 수 있다. 금정산성 제2 망루 가는 길까지는 다소 숲이 채다. 남문을 통과한 다음 산성고개에서 동문을 지나 부채바위, 제4 망루, 원효봉, 북문에 이르는 능선길은 부산 전체를 조망하는 시원한 길이다. 금정산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성으로 문루 4개사, 망루 4개소가 소재해 있다. 산성 내 산성마을에서 생선도는 막걸리와 염소고기는 맛이 뛰어나, 등산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북문 고산승지에서 천년고찰 범어사가 있는 계곡을 따라 내려와서 팔송까지 금어동천, 비석골 서어나무 숲을 호젓이 걷는 옛길이 펼쳐진다. 노포동에서 연동농장을 지나면 수영강 중상류를 따라 회동수원지 상현마을에 이른다.

8코스(17.2km, 5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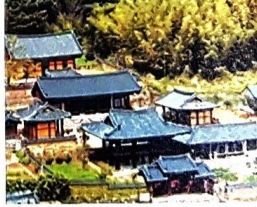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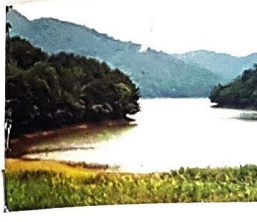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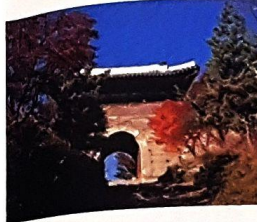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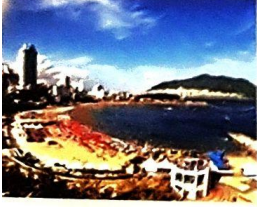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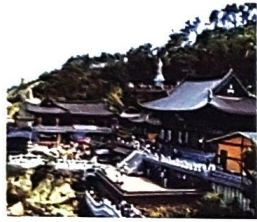
상현마을 ~ 회동수원지 ~ 동천교(석대다리) ~ 과정교 ~ APEC 나루공원 ~ 민락교

회동수원지길은 2009년 부산 갈매길 축제 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평탄하고 쉬운 길인 동시에 수영강과 회동호의 수변이 재충하는 경관이 뛰어나다. 특히 장전구곡의 1경인 오륜대를 비롯하여 부영산(175m) 정상에서의 조망이 뛰어나다. 땅피에서 온 산 자락을 휘감아 돌며 명장정수사업소가 이어지는 수변길은 아홉산 줄기가 회동호에 병풍처럼 서 있고 물새들이 한가로울 소상당울을 연상케 한다. 회동수원지는 일제 강점기인 1942년 조성되면서 수몰민의 원성과 울분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기도 하다.

9코스(20.5km, 6시간)

상현마을 ~ 장전2교 ~ 장전마을(철마면사무소) ~ 이곡마을 ~ 모연정 ~ 기장군청

철마천과 이곡천을 따라가다 아홉산과 일광산 허리를 휘감아 걷는 길이다. 들어리는 회동수원지 거점 마을인 선동 상현마을이며 철마천이 수원지로 들기 전 만나는 진명교에서 바라보는 구룡차의 풍경은 정경고도 고즈넉한 멋이다. 추파오기(1837~1917) 선생의 장전구곡(長田九曲圖) 시비가 있다. 73년 시내 버스 종점이 있는 이곡마을 삼백날 타니 무에서 기장태미림도가 전개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인된 MTR코스이기도 한 길은 굽이굽이 사행하며 일광산 자락을 휘감아 돌아 백두사 가는 갈림길에서 다랑이논들이 펼쳐진 동서마을을 지나 기장군청으로 이어진다.



송도해수욕장 일대, 관광시설·테마파크 건립

부산발전연구원(BDI)-송도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계획 의견제시



베이 샌즈 같은 호텔을 조성하고, 영화관을 비롯한 복합 테마 쇼핑몰을 만들자는 개발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진중공업의 사유지인 이 땅에는 한진 층이 지하 5층, 지상 62층 규모의 아파트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자체 개발계획으로 가지고 있다고 BDI는 밝혔다.

그러나 BDI가 전문가 등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한진매립지에는 주거기능이 빠져야 복합, 자갈치시장, 송도를 연결시키는 중심역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향후 개발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BDI는 그동안 부산시, 서구청, 민간 등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을 종합해 이 일대를 '송도 해양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제시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친수 여가·문화·상업공간으로, 한진매립지와 송도해수욕장 일대는 해양레저공간, 천마산과 장군산 일대는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용역에는 남부민방파제~남항대교 구간을 공동어시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레저항으로 개발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효영 기자

부산발전연구원(BDI)은 송도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해양관광단지으로 개발하고, 송도 해상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 체형형 관광을 위한 테마파크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서구청에서 열린 '송도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BDI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서구청이 올해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에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BDI에 의뢰한 것이다.

BDI는 서구 암남동 한진중공업 매립지 일대에 마리나

송도공원~암남공원 간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 재개



송도공원~암남공원 간 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부산시 공동위원회와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도 해상 케이블카 복원 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상 케이블카 복원 사업의 핵심은 송도해수욕장 남쪽 암남공원과 북쪽 송도(송림)공원에 각각 상·하부정류장을 설치해 송도해수욕장 앞 해상 1.62km 구간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이다. 오는 2015년 8월 준공이 목표다. 1964년부터 1988년까지 운영됐던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거북섬과 해수욕장을 가로질

러 연결됐으며 길이도 420m에 불과했다.

이번에 복원하는 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 양 끝에 있는 두 공원을 이어 케이블카를 타고 해수욕장 일대를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민간사업자인 (주)송도해상케이블카는 총 사업비 590억여 원을 들여 10명이 탈 수 있는 객실(캐빈) 27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와 서구가 동의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해상 케이블카 건립으로 인해 발생할 환경 파괴를 최소화 했다. 케이블카를 연결하기 위해 바다 위에

설치할 해상지주를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였다.

서구청은 해상지주가 건설될 장소에 전복과 해조류 양식장이 있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향후 케이블카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해상지주가 적을수록 좋다고 판단했다. 또 상부정류장 예정지인 암남공원 내 부지에 공술근락이 있어서 이 사업으로 인한 지형·수목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 선임연구원은 차후에는 다대포 물은 대까지 해상 케이블카를 연장해 서부산 관광벨트를 조성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달맞이언덕 해월정 앞 '스카이 워크' 조성

미포오거리 ~ 송정해수욕장 간 5.6km, 무가선 저상 트램(노면전차) 도입키로



오륙도스카이워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언덕 해월정 앞에 '스카이 워크'를 조성한다. 해운대구청은 최근 '달맞이언덕 관광 활성화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열고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해월정에서 송정해수욕장 인근까지 와이어를 연결해 몸을 매달고 내려가는 '집라인'도 추진한다. 해월정 아래 해안엔 대규모 인공폭포를, 어울마당 아래 해안에 전망대를 각각 만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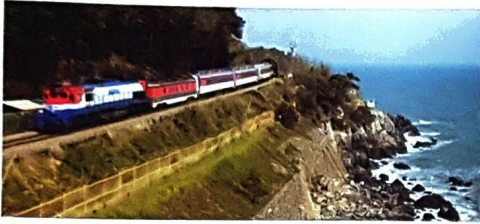
구청은 또 미포오거리~송정해수욕장 간 5.6km 구간에 선

로가 필요 없고 배터리로 움직이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 '무가선 저상 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 상당수를 달맞이 언덕으로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에는 달맞이언덕 정상 부근 군부대 부지 13만㎡를 국방부와 협의해 체육시설, 잔디광장 등을 갖춘 대규모 오토캠핑장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청은 달맞이언덕 상권 개발을 위한 '문화거리' 조성 사업도 벌인다. 달맞이언덕의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을 묶어 특화거리로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활용 방안 회의체 구성

폐선 부지는 그 자체로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



부산 해운대~송정 간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회의체가 구성된다. 해운대구는 최근 동해남부선 미포~송정(4.8km) 구간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범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에는 학계, 시민단체 등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 철도시설공단은 부산시와 별도로 미포에서 송정역에 이르는

구간의 기존 선로를 활용, 해안 관광 차원에서 레일바이크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 활용 부산시민 모임 등 주민들은 "레일바이크 설치 같은 성급한 개발은 오히려 경관을 망칠 수 있다"며 "폐선 부지 이용권은 온전히 시민에게 돌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모임 관계자는 "폐선 부지는 그 자체로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인데 큰 고민 없이 레일바이크장으로 만드는 건 옳지 않다"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는 최근 철도시설공단에서 미포~송정 구간 관리권을 이관받아 3월부터 관리에 나선다. 구는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지원받아 안전펜스, CC(폐쇄회로) TV등을 설치한 뒤 3월부터 주민에 개방할 예정이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미포~송정 4.8km 구간 민자사업 본격화

동부산권 관광벨트 핵심 역할 할 것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중 해운대구 미포~송정 4.8km 구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개발이 본격화 된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중 미포~송정 구간은 미포와 구덕포, 청사포로 이어지며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해안절경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구간은 해운대에서 가장군 동부산관광단지로 이어지는 동부산권 관광벨트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역사 4천868㎡ 부지와 역사를 중심으로 좌우 철로 150m 구간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데다 해안절경을 끼고있어 역사성과 환경 등을 어떻게 조화시켜 개발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모든 가능한 사업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다양한 민자사업 제안에 대해 공공성과 수익성,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업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철도시설공단은 3월 말까지 민간제안 공모를 마감한 후 심사를 통해 민자사업안을 확정하고 4월중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민자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자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등 절차를 밟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최종 확정 후 본격적인 민자개발사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의 민자사업과 별개로 시는 해운대구 올림피코차로~동부산관광단지에 이르는 9.8km 구간, 26만 8천㎡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대해 '그린 레일웨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철도시설공단이 개발을 추진하는 미포~송정 구간은 철로 구간을 제외한 인접 철도시설부지와 사유지 등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상징 광안대교, 1만6천개 LED 조명으로 설치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가 화려하고 역동적인 새 조명을 선보였다. 1만6천개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새로 설치, 다양한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불빛쇼와 '부산의 얼굴' 등 볼거리를 연출했다. 광안대교 새 조명은 평소 계절에 맞는 색으로 움직임이 없는

기본 조명을 보여주다가, 하루 2~3차례 다양한 불빛 쇼를 연출한다. 크리스마스 같이 특별한 날에는 그에맞는 다양한 조명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광안대교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에 서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근을 잇는 총연장 7.42km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대의 해상복층 교량이다.

광안대교의 개통으로 수영로와 해운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고 항만 물동량을 신속하게 경부고속도로와 연

결하여 물류비용의 감소와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최첨단 부산 정보업무 복합단지인 센텀시티의 기능을 극대화 하게 되며,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활용되어 해상 관광의 활력을 높이고 부산이 세계적인 무역도시이자 해양도시로 뻗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자갈치 일대, 국내·외 관광객 위해 해양수산 복합 공간으로 조성

부산명물 자갈치시장에 수산물 관련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씨푸드 테마파크와 부산과 자갈치를 알릴 홍보관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자갈치시장을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관광시장으로 만드는 '자갈치 글로벌 수산물소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도심형 관광 위판장 건립사업과 함께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채택됐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원(국비 4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오는 2018년까지 사업비 18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갈치시장 주변의 비위행적인 판매대 및 좁은 보행로, 물양장 등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수산물 판매 시설을 개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자갈치 일대

를 국내외관광객이 즐겨찾는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시는 물양장 기반시설 조성 및 노점상 정비, 보행로 확보에서 나아가 씨푸드 테마파크와 홍보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자갈치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수산도시 부산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만나는 명품수산물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동북아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감천항 물류무역기지와도 연계돼 있어 부산이 해양수산물거점도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위해 KTX, BPA, 에어부산 협력키로

부산과 경남지역의 여행·관광업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코레일은 KTX할인 추진, BPA는 크루즈 기항에 주력, 에어부산은 부정기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오는 4월 초순 개통 예정인 인천공항역~서울역 KTX 노선과 기존 서울역~부산역 및 마산역 KTX를 연결해 중국인 관광객을 부산과 경남지역으로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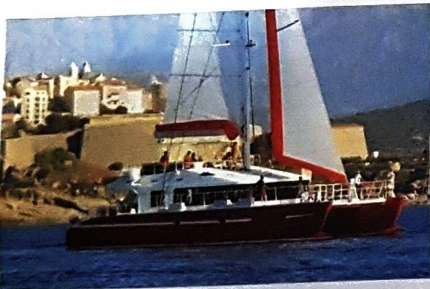
지역 관광업계는 인천공항역과 부산역 및 마산역이 KTX로 연결될 경우 현재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등남권으로 끌어들이는 '역빨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부산 기초자치체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동구청은 초량동 차이나타운 특구에 전시 및 관광안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중우호센터'를 4월 중 준공한다.

부산항과 김해공항도 최근 급증세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중국 주요 항구를 운항하는 세계 대형 크루즈 선사들의 부산 기항 횟수 증가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중국인은 크루즈를 타고 부산에 입항하는 관광객의 68%를 차지하며, 부산 크루즈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에는 올해 137회에 걸쳐 외국 국적의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9회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에어부산은 현재 직항편을 운항 중인 부산~칭다오·시안 노선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내 관광 수요가 많은 스자좡·닝보·우한에도 부정기편 운항을 검토 중이다.

부산항에 고급크루즈선 1척·슈퍼요트유람선 3척 도입 운항예정



올 하반기 도입에 운항할 예정인 100인승급 카타마란 유람선 트리콜 S&S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300인승 크루즈선 등을 도입, 운항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와 사업자인 (주)트리콜S&S는 고급 크루즈선 1척과 슈퍼요트유람선 3척 등 4척을 도입해 운항하고, 관련 법에 부합하고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운항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크루즈선은 해외에서 250~300인 승 규모를 들여오기 위해 세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슈퍼요트유람선은 현재

100인승급으로 사업자가 3척을 발주, 부산의 한 공장에서 작업 건조 중이다. 돛과 엔진으로 함께 운항이 가능한 기범선(機帆船)으로, 길이 23m, 폭 10m, 높이 28m가량이며 동체가 두 개(쌍동선)인 카타마란 유람선이다. 현재 구상 중인 코스는 터미널 동측으로는 광안대교~동백섬~청사포~송정 구간, 남측으로는 이기대~오륙도~부산항대교~태종대~남항대교~송도(암남공원)~물운대 구간이다.

트리콜 S&S는 △신규 유람선 건조를 통한 고급화 △돛과 바람을 이용한 범선 체형 △부산항대교 경관조명 등 원도심 풍광 관광 △다양한 코스 개발 등을 통해 해운대와 태종대를 중심으로 운항 중인 기존 연안유람선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운항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크루즈선 시범 운항은 이르면 4월, 슈퍼요트유람선 운항은 올 하반기다. 하반기에 크루즈선과 슈퍼요트유람선 운항이 동시에 이뤄지면 단체관광, 체험관광 등 다양한 해상관광 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와 사업자 측은 내다보고 있다.

'힐튼' 운영 랜드마크 호텔 4월 동부산관광단지내에 착공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이 운영하는 랜드마크 호텔이 오는 4월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내에 착공된다. 기장군청은 에어부산이 기장읍 시랑리 일대 동부산관광단지 숙박시설 지구에 랜드마크 호텔과 프리미엄 콘도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계획안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랜드마크 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0층 전체 면적 8만 8천663㎡ 규모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객실 306개와 실내의 수영장, 연회장, 클럽, 온천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호텔 등급은 특 1급이다. 또 호텔과 인접한 4만 4천

여㎡ 부지에는 프리미엄 콘도가 들어선다. 객실 수도 120개에 이르러 호텔과 콘도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에어부산은 랜드마크 호텔 건립 투자자인 '콘라드 힐튼 컨소시엄'의 주관사 '에어스 퍼시픽'의 별도 법인으로, 호텔 및 콘도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콘라드 힐튼 컨소시엄 측은 호텔만 세울 계획이었으나 호텔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7월 토지 분할을 요청했고, 부산시는 콘도 건설이 가능토록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승인 2016년 상반기에 완공 할 예정이다.

부산역 주변에 호텔 5곳 더 생긴다

북항재개발 지역 내 국제여객터미널 완공 시점에 따라 국내·외 여행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초 북항재개발 지역 내 국제여객터미널 완공 시점에 따라 국내·외 여행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부산역 인근에 비즈니스 호텔들이 줄줄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 건립 대상지는 초량동의 올림픽예식장, 대리운전업체 트리콜 주차장(옛 조달청), 코레일유통(옛 홍익회) 부지, 천일주유소 부지, 경남여중 인근 공터 등 총5곳이다.

서울에 이어 '부산관광경찰' 연내 출범

관광경찰이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101명)에 설치돼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관광경찰이 올해 안에 출범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밝힌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지역의 성공적인 관광경찰 시범 시행에 이어 부산 등 외국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부터 차례로 관광경찰을 확대해 관광객 보호와 안전한 관광 한국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다.

관광경찰의 주된 역할은 관광과 관련한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 단속·처벌을 통한 관광객 보호와 안전한 관광이미지 제고,

관광 부가서비스(교통편의, 여행정보 등) 제공 등이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은 외국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시내 7개 지역(명동, 이태원, 홍대입구, 동대문소공동, 시청·청계, 인사동, 남대문)을 중심으로 순찰과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체부는 관광경찰 확대를 위해 이달 중 경찰청,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광경찰운영과 관련한 실무사항을 협의한 뒤 올해 안으로 35명규모로 부산 관광경찰을 출범할 계획이다.

부산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부산시는 올해를 한방의료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내용의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한방의료관광객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중 부산을 찾은 관광객은 11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방의료관광객 중에서는 60% 이상이 일본인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중국인과 러시아인이 뒤를 잇고 있다. 한방의료관광객은 전체 의료관광객의 5% 수준으로 시는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내다봤다.

시는 한방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팜 투어를 활발히 펼치고, 의료관광산업전에 한방 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국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음달 열리는 부산의료관광 베트남 특별전에는 한방부스를

다수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의료관광과 관련한 한방 지출액은 1조8000억 원, 관광 지출액은 1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생선파급 효과는 한방 부문 3조 원, 관광 부문 2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한방 인프라를 관광 자원과 결합하면 전국 최고의 한방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 미용성형 침술과 피부 미용, 비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해마다 한방의료관광객이 10% 이상 증가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 현재 부산에는 1059곳의 한의원과 35곳의 한약업사, 34곳의 한약국, 48곳의 한약도매상이 있다.

100m높이 회전식 황령산타워 건립추진

부산시는 황령산에 부산 전역을 조망하는 전망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황령산 전망타워는 황령산 봉수대 인근 1000㎡ 부지에 높이 100m, 폭 2.5m 규모로 설계된다. 시는 개발을 최소화하려고 회전식 철제 전망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타이거스카이라워와 비슷한 모양을 구상하고 있다. 사업비는 보상비 1억 원, 설계비 2억 원, 공사비 87억 원 등 총 90억 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다음 달 용역 결과가 나오면 4~6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착공해 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시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 참여키로

부산시는 지난해 정부가 관광진흥 확대 10대핵심과제로 발표한 체류형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참여키로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이달 14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구축 협력 적정성 ▷의료관광 산업 잠재력 ▷클러스터 구축 내용 타당성 ▷구축 사업 파급 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부산은 해수욕장과 해안 절경, 대형 쇼핑몰, 호텔 등이 밀집한 해운대권과 동남권원자력역학권 및 중입자가속기가 있는 동

부산권, 도심권의 서면 메디컬스트리트와 연계하면 시범단지의 최적지이다.

시범단지로 유치되면 국비 16억 원을 지원 받는다. 천혜의 해안 경관과 편리한 쇼핑 환경, 전국 최고의 관광 서비스, 뛰어난 의료 인프라 등을 앞세워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올해 의료관광 클러스터로 선정되면 오는 2020년에는 의료관광객 20만 명, 아시아 3대 의료관광도시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마리나호 등 134회 기항, 크루즈관광객 35만명 기대



호가 30회, 보이저호가 16회 입항할 예정이다. 코스타 크루즈사의 아틀란티카호가 22회, 빅토리아호가 23회 부산을 찾는다. 특히 마리나호와 빅토리아호는 부산항을 순격이 타고 내리는 모항으로 이용할 예정. 부산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만큼 더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크루즈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영도 크루즈터미널과 도시철도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관광통역 전문인력 30명을 양성해 관광안내소와 크루즈 안내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부산을 찾은 크루즈관광객이 35만명으로 사상최대기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134회에 걸쳐 35만명의 크루즈관광객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예상,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9회, 28만명보다 20% 늘어 난 것이다. 올해 부산항에는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사의 마리나

시는 부산이 동북아 국제크루즈 기항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편다. 크루즈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3월 마이애미 국제크루즈박람회 참가하고, 6월에는 벅스 코에서 크루즈 국제회의를 여는 등 세계 크루즈선사 유치에 힘을 쏟는다.

지난해 152만여 명 입·출국 위해 부산항 이용

지난해 부산항을 이용한 입·출국 여행객은 2012년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해 152만 5천여 명이 입·출국을 위해 부산항을 이용했으며, 이는 2012년 138만여 명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중 외국인인 2012년 51만 7천여 명보다 20% 증가한 62만 1천여 명, 내국인은 86만 3천여 명에 비해 5% 증가한 90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여행객 증가는 대형 외국적 크루즈선의 부산항 입항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크루즈선의 입항은 지난해 109척으로 2012년 129척에 비해 16% 감소했지만, 크루즈선을 이용한 외국인 입국 여행객은 19만 5천여 명으로 2012년 9만 5천여 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또 지난해 입국 여행객 중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초과로 유치·통관된 건수는 1천 953건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주요 반입 물품은 해외 유명상품 핸드백, 시계, 화장품 등이었다.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철원 'DMZ, 전전뚝뚝의 여행길'에 오르다

길은 길을 만나고 또다시 길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래서 길은 느리고 깊게 파고들수록 채우고 있는 풍경.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어우러져 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장순복 탐사대장(대륙항공여행사 대표)을 비롯, 교육계·종교계·언론계·여행사 대표 등 40여명이 강원도 DMZ 관광청 초청으로 '두루미를 찾아 떠나는 철원 DMZ' 길에 올랐다. 이른 새벽 부산을 출발한 버스는 여주~양평~하남~의정부~포천을 경유 6시간 넘게 달려 철원에 도착. 산과 들에는 부산에서는 좀처럼 구경하기 힘든 흰눈이 소복히 내려 앉았다.

1931년 철원~내금강 간 금강산 전기철도 개통 후 관광붐 이르켜

철원은 1914년 경원선이 개통되면서 김화 평강 이천 회양 연천을 아우르는 북부 강원 교통,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1931년 철원~내금강(116.6km)간 금강산 전기철도가 개통되고 부터 관광붐을 이르켜, 사람과 문물로 넘쳐났다.

1930년대 철원을 풍경, 관전리에는 철원극장, 철원백화점, 조선식간은행 철원지점, 사요리에는 독립철원의원, 우시장, 종연방적철원공장, 외촌리

에는 철원역, 제2금용조합, 얼음창고, 농산물검사소 등이 들어서 있었다. 1940년 당시 철원인구는 10만여명, 인구수로는 강원도 내 3대 도시였다. 활발한 철원평야를 기반으로 한 양곡과 축산, 양잠 산업의 발달로 1925년 시가는 상점이 즐비하고 전 등이 가설돼 불야성을 이뤘다고 한다.

10세기 초 '대동방지국'을 꿈꾸며 철원을 도입으로 정했던 궁에

철원은 천 년의 영화가 고스란히 묻혀 있는 땅이다. 10세기 초 궁예가 '대동방지국'을 꿈꾸며 도입을 정하고 청주 사람 1천호를 집단으로 이주시켜 도시를 만든 곳이다. 19세기에는 일제가 황무지를 개간 해 거대한 도시를 세웠던 곳. 해방직후에는 북한 치하 강원도청이 있던 그 곳이 철원이다. 그 철원이 지금은 비무장지대 한 가운데 갈혀 있다. 그러나 철원 사람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형의 땅을 아직도 철원이라 부르고 있고, 옛 영화와 변명을 자긍심으로 잇고 있다.

철원! 그 거대한 근대도시가 쑥대밭이 된 것은 태평양 전쟁 직후인 1940년 1월초, 연합군 비행기 수십대가 원산 철원 등지를 폭격했으며, 1950년 미군의 B29편대가 폭격, 1953년 7월까지 한국 전

사상 가장 치열했던 철의 삼각전투, 백마고지전투를 치르면서 도시는 사라져 버렸다. 마치 그 옛날 정철이 북관정(종리 소재)에 올라 천고 흥망의 성쇠를 읊었던 궁예의 폐 궁터처럼... (궁예도성은 정확히 DMZ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철원의 천년 속에는 궁예의 사민도시와 일제의 계획 도시, 해방공간의 수부도시, 냉전시대의 정책 이주 도시가 다층을 이루고 있다. 그 곳을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의 도시 유적지라 부르는 이유이다.

남·북이 2Km씩 물러나 앉은 완충지대 DMZ!

DMZ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DMZ, 비무장지대는 엄밀히 말하자면 1953년 휴전이 되면서 서쪽 임진각 하구에서 동쪽 고성 명호리까지 그어진 군사분계선(휴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2Km씩 물러나 앉은 군사적 완충지대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DMZ는 막연히 북쪽이거나 남한의 끝이다 혹은 전방을 떠올린다. 이 군사적 대치 선은 지난 반세기를 거치면서 분단, 냉전, 갈등의 대치어로도 기능했다. 21세기 들어서는 '평화'라는 미래지향적 의미까지 확장되고 있다.

승일교-북한땅 평강에서 시작된 한탄강은 김화, 철원, 연천, 포천을 거쳐 임진강으로 흘러든다. 현무암 재대는 오랜 시간 침식되면서 곳곳에 절경을 빚었다. 신철원에서 구철원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승일공원은 철원 DMZ여행의 관문이다. 승일교를 알려주는 표지석에는 1958년 12월 미완성된 다리를 국군이 마저 완공하고 승일교(昇日橋)란 이름을 붙였다고 돼 있다. (다른 설에 따르면 이승만 '승'자와 김일성 '일'자를 따서 승일교라고 했다고 한다.) 이



철원여행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노동당사 한탄에 남아 있는 유일한 건축물로써 승일의 건물, 공포의 권력기관, 반공의, 수많은 영인들을 획실한 현상이었다.

다리가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다시 건설했다는 사실이 몇년전에 밝혀졌다고 한다. 1952년 이른 봄 홍남철수작전에 동원됐던 미 79공병대대가 철원지구에 주둔해 있었다. 이들에게 긴급명령이 하달됐다. 당시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철원, 김화, 평강에 이르는 철의 삼각지대를 방어하기 위해선 한탄강 이남과 이북을 연결하는 군수품 보급로 구축을 위해 완공했다고 한다. 지금 승일교 옆에 새로운 한탄대교가 완공직전에 있다.

두다리를 건너면 다시 하나의 길에서 만나게 된다. 남한에 반쪽, 북한에 반쪽씩 걸쳐 있는 철원 땅도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철원 사람들의 소망을 오늘도 무심히 흐르는 한탄강물은 알고 있을까?

노동당사는 우리의 현대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북한 건축물이다.

노동당사-철원 DMZ여행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노동당사. 남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북한 건축물이다. 수들의 건물, 공포의 권력기관, 학생의 현장에서 언제부터인가 평화의 상징이 돼 술한 퍼포먼스 무대가 되고 있다. 건물은 갈라지고 얼룩져 있다. 갈라진 틈은 외롭고 고독했던 지난 세월의 수난을 말해 준다. 건물은 총알 자국으로 근근근과 살점이 패였다. 서른 네 개단의 중앙에는 탱크가 밀고 올라간 케터필러 자국이 문신처럼 남아 있다. 또한에 둘러싸린 건물의 내부는 텅 비어 있다. 갈라지고 부서진 틈틈이 가슴 아프게 한다.

보안을 위해 칸칸이 방음벽 시설을 했다. 비밀이 새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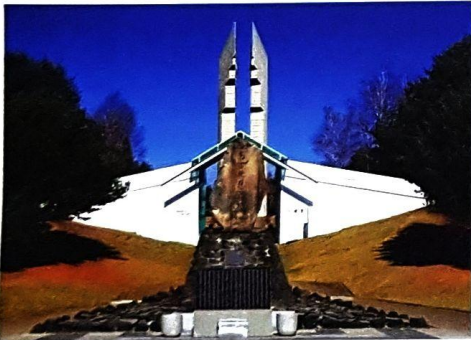


1958년 12월 미완성된 한탄대교. 이승만은 공적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미국 남한의 건축(승일교)만들어준 다국적 기업이다. 한탄강변의 승일교

가지 않도록 공사인부는 공산당 열성 당원들만으로 건물을 완공했다. 당시 노동당사는 철원, 평강, 김화, 포천, 연천지역을 장악하는 공포의 권력기관이었다. 반공인사는 고문, 학살하고 수많은 양민들이 집단학살 됐다. 그 후 1994년 비무장지대 노동당사를 위한 열린음악회가 열리면서 각종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2001년 3월 1일 노동당사는 근대화휴식산으로 지정 됐다. 최근 건물의 붕괴를 우려해 지지대를 세우고 새로 건물복원이 한창이다.

세계 전사상 유래없이 처절한 포격전, 수류탄전, 백병전을 10일 주야로 반복끝에 고지를 아군이 차지

백마고지- "누가 중국의 호적을 두려워하라. 나를 비롯하여 사단의 모든 전우들이여, 여기에 우리의 뼈를 묻자! 그리하여 우리 9사단의 빛나는 명예를 지키자." 1952년 10월 5일 백마고지 전투를 앞두고 사단장 김중오 장군은 이렇게 외쳤다.



백마고지 총포탑

백마고지는 강원도 철원군 묘장면 신령리에 위치, 해발 395m의 아산으로 무명고지에 불과했으나 철의 삼각지의 중요지형지물로 유명해진 곳이다. 명칭의 유래는 전쟁중 포격에 의해 수목이 다 쓰러져 버리고 난 후의 현상이 누워있는 백마처럼 보여서 백마고지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백마고지 전투는 한국전쟁 (50년 6월 25일~53년 7월 27일) 기간 중 가장 치열하게 고지 경탈전을 전개했던 곳이다. 1952년 10월에 국군 제9보병사단과 중공군 39군 3개 사단이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중공군 1만여명이 전사상 또는 포로가 됐으며 제 9사단 장병도 총 34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 세계전사상 유래가 없을만큼 처절한 전투로 기록됐다.

DMZ 스토리텔링, 하나

소나무 밑에 묻었던 그림향아리 비밀을 간직한 채, 그 강은 지금도 무심히 흐르고 있다

DMZ 철책에 묻힌 그림 향아리
강원도 철원군 금남면 마현리 승리전망대 산아래 남대천변 당삼리에 전쟁중에 그림 향아리가 묻혔다. 전쟁이 끝났을때는 마을도 그림향아리도 DMZ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 그림향아리 속에는 가장 한국적인 화가 박수근의 초기작들이 들어 있다. 1952년 10월 금성에 살던 부인이 피난길에 남대천을 건너다 남편의 분신이던 초기작 수백편 그림을 향아리에 넣고 묻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곳은 비무장지대로 지뢰가 묻혀 있는 곳이다. 남대천은 지금 DMZ 속을 흐르고 있다. 서울로 가는 신작로 객차 3함을 달고 달리던 금강산 전철과 나란히 남쪽을 향해 흐르고 있다. 남편의 그림을 싸들고 남으로 가다가 소나무 밑에 묻었던 그림향아리 비밀을 간직한 채 그 강은 지금도 무심히 흐르고 있다.(1979년 부인은 작고) 지금 박수근의 그림은 호당 1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1100년의 긴 긴 세월 옛날이야기로운 남아 있는 환상의 성, 전설의 성은 DMZ속에 묻혀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애꾸눈 궁예왕의 성(城)이...

모노레일을 타고 철원평화전망대에 오른다. 차창 밖으로 동승저수지에는 철새떼가 보이고 그 너머로 광활한 평야가 눈에 들어온다. 그 초록의 평야가 바다처럼 펼쳐진 그 안에 태봉국 궁예 왕이 세운 도성이 숨어 있다. 고려사지리지에는 궁예 궁전의 옛 터가 동주(東州, 철원의 옛 지명)의 북쪽 2리 풍천벌에 있으며 지금 그 위성의 둘레는 1만 4421척(4,370m)이요, 내성의 둘레는 1905척(577m)라고 기록돼 있다. 이 규모는 풍남토성(둘레 3.5km)의 3배, 신라의 경주월성(1.8km)의 5배, 고구려의 국내성(2.7km)의 4배쯤 되는 크기다. 1100년의 긴 긴세월 그 큰 성(城)은 늘 그 곳에 있었다. 6.25 후 DMZ 속에 묻혀 있는 그 성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성은 옛날이야기로운 남아 있는 '환상의 성', '전설의 성'이었다. 그러나 궁예왕의 대동방국 건설의 야망이 깃든 그 성은 '이상의 성'이고 이승의 고난을 다 내려놓으라고 궁예가 설파하던 미륵신앙의 메카 피안(彼岸)의 성이었다.

궁예왕은 DMZ속에 자신의 성을 묻어 두었다. DMZ 속에 궁예성 사이에는 10세기도 넘는 시공의 거리가 있다. 인제가



▲아무도 오갈수 없는 DMZ 어딘가에 태봉국 궁예왕이 세운 도성이 묻혀 있다. 파견나온 병사가 북녘땅을 손짓하며 탐사격을 위해 설명하고 있다

될지 모르지만 DMZ 속의 궁예성이 우리들 앞에 상상에서 현실로 돌아올날이 기다려진다.

철원평야는 여름에는 인간들에게 양식을, 겨울에는 철새들에게 가슴을 내준다.

철새들의 낙원 철원 양지리 토교저수지는 지뢰밭 한 가운데 들어앉아 있다. 5년에 걸쳐 공사끝에 1백만평 크기로 축조됐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뒤 북한은 철원평야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물길을 잘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호수가 생기자 멀고 먼 시베리아에서 두루미, 재두루미, 청둥오리, 가창오리, 쇠기러기 때가 찾아들기 시작한다.

지금으로부터 27만년전 평강고원의 오리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오리산에서 분출된 용암은 정점이 뚫었다. 11회나 폭발하며 흘러내렸던 붉은 용암은 한탄강유로를 따라 흘러 문산까지 뒤편였다. 그때부터 땅속의 마그마의 영향을 받아 있는 경미한 온천으로 변신, 양지리 한탄강까지 이어지는 6km의 실개천도 얼지 않아 미꾸라지, 줄납자루 등도 겨울잠도 지지 않는다고 한다. 겨울밤이면 토저수지에 가득내려 앉아 있는 철새들이 해뜨기전 어



철새 모이배 호수에 뿌리고 있는 단열수(熱水)

두운 새벽 호수는 분주해진다. 새 때가 만든 두꺼운 검은 피가 호수를 가로지른다. 이내 검은 피 한쪽 끝이 들어지더니 큰 호수를 들어 울릴것 같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다. 비행기가 들때와 같은 폭음이 인다. 수천 수만 마리가 작은 점이 될때까지 날아오른다. 지금 양지리는 새벽마다 피어 오르는 새 구름 장관을 볼 수 있다.

DMZ 스토리텔링, 둘

철원평야는 철새들의 천국이다. 풍부한 낱알과 오염되지 않은 저수지를 찾아 겨울이면 수만마리의 철새가 이곳으로 날아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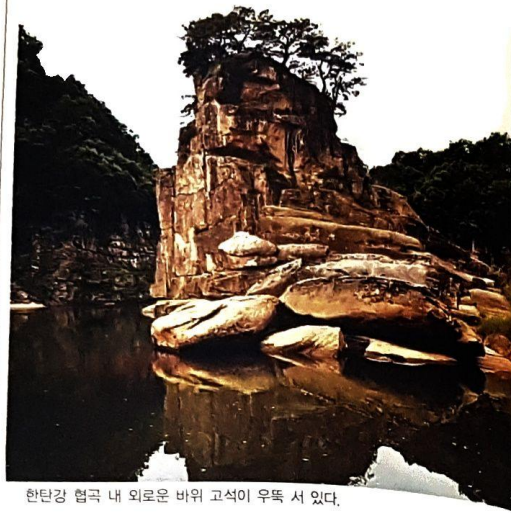
두루미의 순애보-철원을 사방지리에는 두루미 무덤이 하나 있다. 비옥도 하나 서 있다. 조류협회 회원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 무덤에는 절개를 지킨 두루미의 순애보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해마다 겨울이면 SEOUL KOREA 19930117 KBTA라는 암호문을 발목에 달고 날아간 두루미를 찾는 일이 벌어진다. 1992년 12월 DMZ의 병사들은 발판 끝자락에 두루미 한마리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레째 되던날 아침에도 두루미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다음날 두루미는 쓰러졌다. 병사들은 조류협회에 도움을 청했다. 철원지부 회원들이 달려왔을 때 두루미는 눈을 감은채 꾸룩꾸룩 울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또 다른 두루미가 누워 있었다. 독수리에 찢긴 듯 상처를 입은 채 얼어 죽은 수컷이었다. 남편의 임종을 지키던 암두루미는 굴주린채 추위로 부터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암두루미는 서울로 긴급 수송됐고 수컷의 사신은 사방지리에 묻어 주었다. 서울로 후송된 암두루미는 극진한 간호로 한달만에 건강을 되찾았다. 봄이 다가오자 두루미떼는 고향인 시베

리아 한카호로 떠날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조류협회 회원들은 암두루미 발목에 SEOUL KOREA 19930117 KBTA라고 새긴 알미늄 가락지를 끼워줬다. 그 후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알미늄 가락지를 낀 두루미를 찾아 다녔지만 아직도... 한마리의 새이지만 애절하게 망무를 그리던 모습을 철원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있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죽을때까지 절개를 지키며 같이 산다는 두루미를 비롯한 각종 철새들이 지금 철원평야를 가득 메우고 있다. 시베리아, 사할린, 알래스카, 북극북부의 지구촌 기러기들은 모두 철원 평야로 모인다. 그렇게 철원평야는 새들의 겨울 휴양지이다.

고석(孤石) - 철원의 옛 땅을 기억하는 외로운 바위 고석은 철원군 등송을 장흥리 한탄강 협곡 내에서 관찰되는 높이가 약 15m '화강암' 바위이다. 고석주변에는 고석정이라는 누각이 위치하고 있어 일대의 협곡을 총칭하여 고석정이라는 지명으로 부르고 있다. 일대는 현무암 용암지대 형성이전의 지형과 함께 현무암질 용암이 기반암 위로 흘러 용암지대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지형 학습장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석은 철원땅이 용암으로 접하기 이전에 있던 기반암으로 약 1억 1천만년 전(백악기중기)에 기하여 형성된 화강암이다. 이는 오랜 기간의 작용에 의하여 지표에 드러난 이후 약 27만년전 사이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하여 현무암 용암류에 뒤덮혔다고 한다. 한탄강이 용암대지 아래로 새로운 물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표에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직탕폭포 - 한탄강을 거슬러 오르는 한국의 나이아가라 직탕폭포(直湯瀑布)는 한탄강 본류에 위치한 폭포로 평평한 현무암 용암층 위에 형성되어 우리나라의 다른 폭포들과는 달리 하천면을 따라 넓게 펼쳐져 있다. 용암이 겹겹이 식어 굳어



한탄강 협곡 내 외로운 바위 고석이 우뚝 서 있다.

진 용암층 위로 오랫동안 물이 흐르면서 풍화와 침식 작용을 받은 과정에서 용암층의 부분이 주상절리를 따라 떨어져 나감으로써 계단 모양의 폭포가 형성된 것으로 높이는 약 3m에 불과하지만 너비는 약 80m에 달한다. 폭포를 이루고 있는 암석은 신생대 제4기에 만들어진 현무암으로 형성시기는 약 27만년 전에서 1만년 사이로 추정 되고 있다.

삼부연(三釜淵)폭포 -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이 지표에 드러난 뒤 오랜기간 흐르는 물에 깎여 만들어졌는데 높이는 20m, 물줄기가 세번격여 폭포아래 떨어져 가마솥모양 같다하여 삼부연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철원군정에서 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명성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도피안사 -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사찰이다. 6.25때 완전 불타 버렸으나 그 후 새로 지어졌다. 국보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보물인 삼층석탑이 있다.

한탄강 - 옛이름은 체천 혹은 랑천이라고 불렀다. 태백산맥의 황선산과 회양의 철령에서 발원한 수계가 평강군 정연리(현갈말을 정연리)이르러 합류함으로써 철원, 김화, 평강의 삼략극점을 이루고, 계속 남류하여 임진강에 유입하는 전장 110km의 강이다. 한탄강은 흐르는 구비구비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비경으로 칠만암, 직탕, 고석정, 순담 등의 명승지가 있으며 사시사철 맑은물과 풍부한 수량은 각종 민물고기의 사식처일 뿐 아니라 철원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젖줄이다.

집과문헌 : DMZ관광청, DMZ
김경오 bj@busan@hanmail.net

봄·가을 관광주간 신설, 초·중·고 휴업 방안 추진키로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봄·가을에 '관광주간'을 신설하고 이 기간 일부 지역 초·중·고교에서도 재량 휴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관광진흥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차 회의가 외국인관광유치에 주력했다면 이번 회의는 내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 관광활성화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국내관광주간 실시 등 적극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관광주간은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2일로 정해졌으며, '내나라 여행가기' 캠페인과 함께 초·중·고교의 재량 휴업을 유도하는 등 봄·가을 국내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또 도시의 관광 경쟁력 제고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곳을 대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를 선정, 각 지자체에 3년간 최대 2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내 초·중·고교의 경우 관광 주간에 맞춰 재량 휴업에 들어가도록 유도해 사실상 단기 방학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행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으로 규정돼 있는 북

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진출 벽이 낮아지게 되나 신뢰성 낮은 외국자본의 유입 가능성에 따른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500억원의 창조관광기업의 육성 펀드를 조성 운영하고 창조관광보육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관광숙박시설의 시설자금과 1천억원 이상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관광지·관광특구의 응자한지역을 200억원으로 늘리며 저소득층의 통합 문화 이용권 등을 통한 신규 여행수요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51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국내선착륙료·정류료·조영료를 100%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형 브스턴 마린 등 지역명품 스포츠 이벤트를 개발하는 한편 농어촌 관광개발을 위해 능가 소규모 농산물 가공에 대한 규제 완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등급평가제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내국인의 국내 관광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제관광 경쟁력을 15위권으로 끌어올리며, 관광분야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항대교 명칭 '부산항대교'로 확정



부산 북항대교(가칭, 사진)의 명칭이 '부산항대교'로 확정됐다. 부산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5월 개통하는 북항대교의 명칭을 "부산항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담아야 할 수 있는 명칭인 '부산항대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350명 참여)에서 '부산항대교'는 170명이 선호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새부산대교' 73명, '오륙도대교' 63명, '아시아관문대교' 44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구·군의 여론수렴 결과에서도 14개 구·군이 '부산항대교'를 추천했다. 해양항만업계도 "부산항을 품에 안고 있는 교량 명칭으로 '부산항대교'가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여행산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사이트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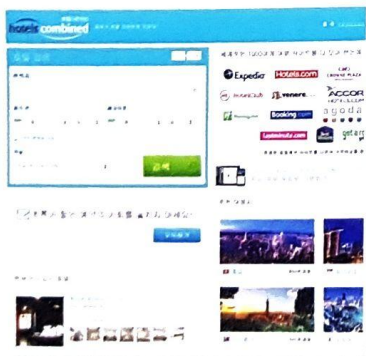
항공과 달리 숙소는 선택의 폭이 워낙 넓어 결정하기 전까지 들어가 할 품이 많다. 이곳저곳 호텔예약사이트를 방문하다 보면 정보도 뒤섞이고 과연 이것이 최저가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호텔도 가격비교사이트처럼 한 번에 검색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던 여행객이라면 호텔스컴바인을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호텔스컴바인은 단 한 번의 검색으로 전세계 주요 호텔 예약사이트를 비교해 최저가 객실과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로 최대 80%까지 할인 가능하다. 세계인들이 즐겨찾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는 많고 많다. 하지만 필요할 때 마다 각 사이트를 돌려 가격 검색하고 최저가를 찾는 동시에 이용자 리뷰까지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호텔스컴바인은 이러한 고민을 쉽게 해결해 준다.

호주 시드니에서 2005년에 설립된 호텔스컴바인은 저렴한 호텔부터 특급호텔까지 전세계 호텔 검색 및 실시간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검색엔진으로 성장을

단 한 번의 검색으로 최저가 호텔 찾는다

호텔스컴바인 | www.hotelscombined.co.kr



가득하는 중이다. 호텔스컴바인은 익스피디아(Expedia), 호텔스닷컴(Hotels.com), 베네레(Venere), 레이트룸스(Laterooms), 이지투북(Easy To Book) 등을 포함한 세계 주요 여행 웹사이트와 객실과 요금을 한꺼번에 쉽게 조회하도록 돕는데 약 12만개 여행지, 200만개 호텔의 특가 상품을 39가지 언어로 제공하며, 현재 연간 1억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더 비싸다면 차액 환불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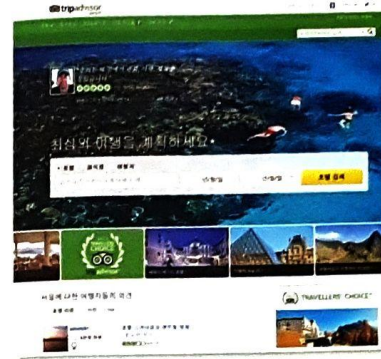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재 위치·가격·인기도·위치·공항 근처 등을 기준으로 한 검색 및 결과 정렬 ▲호텔 객실 정보, 등급, 사진 등의 자세한 소개 ▲쉽고 빠르게 호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지도 제공 ▲쉽고 빠르게 호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지도 제공 ▲120가지 통화로 숙박비 결제 ▲회원가입 없이 사용 가능 ▲지원 가능 호텔에 한하여 가능한 전화예약 옵션 등으로 다양하다.

호텔스컴바인에서 보여주는 가격은 기본 세금을 포함한 것으로 수수료와 추가금액이 없으며 특히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신뢰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는 같은 조건의 같은 호텔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를 찾으면 그 차액을 환불하는 제도이다. 더 높은 요금으로 결제했다면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몇몇 여행지에서는 기본 세금 외에도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예약사이트로 이동하면 추가된 과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모바일로도 예약할 수 있는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호텔스컴바인은 한국 내에서도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카약(Kayak), 독일의 트리바고(Tribago), 싱가포르의 위고(Wego) 등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비슷한 콘셉트의 호텔 가격비교 사이트들에 비해서도 한국어 사이트를 일찌감치 오픈하고 제휴 여행사도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전세계 여행 조언자와 만나다 트립어드바이저 | www.tripadvisor.co.kr



중에 의해 조율하고 있다.

한국의 진입장벽 넘을까

북미권 소지자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트립어드바이저는 현재 전세계 30개국에서 21개 언어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는 한국어 서비스까지 개시했다. 여행 정보를 집대성한 세계 최대 여행 사이트가 한국 시장에서도 맹위를 떨칠 수 있을 것인지 큰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국내에서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하다. 우리나라 IT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후와 구글 등 검색 사이트들이 해외 시장에서 명위를 떨치다가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네이버 등 한국인 맞춤형으로 설계된 토종 사이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과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성공을 거둔 만큼 아직 트립어드바이저의 실패를 논하기에는 이르다. 트립어드바이저는 '다테일한 콘텐츠'를 다량 갖추고 있는 만큼 얻은 여행 콘텐츠 시장의 최강자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각 리뷰는 전반적인 만족도뿐만 아니라 가족, 커플, 나홀로 여행, 비즈니스 등 여행의 목적과 침대의 퀄리티, 입지(위치), 서비스 등 세분화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을 검색하면 난타 명동 전통관, 한국 전쟁 기념관 등 관광 명소 정보가 등장하고 리뷰수와 추천수를 많이 얻는 호텔이 나열된다. 호텔과 모텔뿐만 아니라 리뷰가 등록된 게스트하우스까지 검색할 수 있다. 서울 호텔 중 평가 1위에 오른 웨라톤 서울 디큐브 시티 호텔을 클릭하면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직판 사이트로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또 여행 책자나 블로그에서 찾기 어려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남미 수리남 등 특수 지역 자오도 갖추고 있어 '정보의 범위'에 있어서도 압도적이다.

여행자는 광고가 아니라 '진짜 정보'에 목말라 있다. 특히 경험자인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겪어본 사람의 한마디가 최고의 정보일 수밖에 없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스티븐 카우퍼는 2000년, 전세계 누구나 여행 리뷰를 등록하며 여행 조언자로 나설 수 있는 트립어드바이저를 선보였고 세계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여행자들의 산 경험이 차곡차곡 누적돼 '집단지성'을 이룬 결과,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는 월간 방문객 수 6,000만명 이상, 회원 수 4,400만명, 리뷰 및 평가 건수 1억 개 이상을 돌파하며 세계 최대 여행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트립어드바이저는 단지 양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질을 관리해 왔기에 이용객의 신뢰를 샀다. 잘못된 저온나 리뷰를 신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365일 여행자의 모든 리뷰를 검토하면서 '진짜 정보'만이 정제되도록 정확성을 높인 것이다. 분당 40여 건의 새로운 리뷰가 등록된다고 하니 정보 업데이트 속도에 있어서도 가공할 만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또 여행객에게 파급력이 크고 여행상품 공급자의 수익과도 직결될 수 '평가'에 대해서도 리뷰의 양과 질, 작성 시기 등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알고리

부산시 2014, 5대전략과제 62개사업 관광진흥계획(안) 마련

부산시관광협회 기능활성화를 위해 관광서비스 인력분야 고용센터운영, 부산시 관광공사와도 네트워킹을 통한 국내·외 외국인 유치 주력 추진

부산시가 '부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등 5대 전략과제, 62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2014 관광진흥계획(안)을 마련했다. 올해 관광진흥계획안은 △부산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크루즈 등 해양관광 활성화 △관광인프라 구축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등 5대 전략과제와 62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부산다운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로 부산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고자 지난해 11월 개통한 전국 최초 도깨다리인 영도대교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관광상품 개발, 인근 지역인 영도구 봉래동 어묵전시체험관 관광상품화, 원도심권 근대역사 골목 투어 등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낙동강 자연환경 투어와 사찰 문화체험 코스 개발, 허왕후 신혼여행길 관광상품화, 낙동강 생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낙동강 생태 탐방선 운항 등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기로 했다. 그리고 관광시장에서 지탄을 받아 온 저가 관광상품을 배제하고 우수한 관광상품을 개발한 관광업체에 대해 '우수관광상품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관광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간 등 1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마다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선박과 관광객이 늘어나는 국제 크루즈와 연안 크루즈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 크루즈 유치 증대(2013년 109회-2014년 134회) ▷크루즈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아시아 최대 크루즈 박람회(Seatrad Cruise Korea in Busan 2014) 개최 ▷용호만 연안 크루즈 활성화 사업 추진 ▷낙동강 생태 탐방선 운항 등 7개 과제를 마련했다.

머물고 싶은 '선진형 관광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황령산 야경관광 인프라' 컴퓨터와 전망데크 조성, 전망 타워 건립 검토를 확충하고 친환경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삼락생태공원 오토 캠핑장' 조성, 우수한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내원정사 테플스테이'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객이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관광객의 인터넷 관광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항 등 관문 지역에 선납식 데이터카드를 장착한 태블릿형 스마트폰을 대여해 주는 '스마트 관광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관광객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에 따라 '스스로 관광코스를 짜게 하는 지능형 웹·앱' 개발, 부산방문 관광객에게 큰 할인 폭을 제공할 수 있는 '전국 최초 후불제 부산관광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체(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버스주차장을 갖춘 단체식당 확보, 사후면세점 확산을 위해 민간 차원의 '복합쇼핑몰' (대형식당+주차장+사후면세점) 건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부산시에서 관광객 불편사항 해소와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건의한 '부산관광경찰대'가 9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민간시티투어 도입 추진 등 17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부산관광협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광서비스 인력분야 인력고용센터(구직·구인자매칭 콜센터)'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관광공사 등과도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한 국내·외 외국인 유치에 주력하고자 19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대체휴일제와 관광주간을 적극 활용, 관광콘텐츠(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할인, 지역 축제연계 상품 개발, 쇼핑 할인 등)를 보강해 국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일 정세 악화와 엔화 약세, 중국 여유법으로 인한 방한 관광상품 가격 상승 등으로 부산의 최대 방문객인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러시아(비자 면제 2014부터 시행)와 동남아 등 시장 다변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불교역사의 미스터리 아! 만덕사지...



부산시관광협회 부회장 장순복 (대동항공여행사 대표)

국립동경박물관은 호류지(法隆寺: 법륭사)가 소장하고 있던 전북 김제 금산사 향원반침대를 전시하고 있다. 정식명칭은 대정18년명금산사청동은입사향완이다. 香玩(향완)은 향로의 일종으로 그릇모양의 몸체에 나팔모양의 높은 받침대를 갖추며 이런 형식을 高林冚(고배형) 향완이라 부른다. 향완에는 大定一八年(대정18년: 중국 금나라 연호 고려 명종8년: 1178년) 祇毗寺(기비사) 주지 三重大師(삼중대사) 懺願(해거)스님이 금산사의 仁美大師(인미대사)와 함께 금산사 미륵전에 奉獻(봉헌)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銘文(명문) 89자 가운데 나타나는 祇毗寺라는 절이름과 역사는 고려시대 문헌 및 불교관련 어떤 기록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1972년 10월 28일 부산시 기념물 제3호로 지정한 만덕사지 발굴을 통하여 화려하게 부활했다. 만덕사지(萬德寺址)는 전체면적 3만 2,865m2 규모로 동서 58m, 남북 54m, 높이 4m에 달하는 장방형의 축대를 세워 만든 엄청난 규모의 사찰임이 발굴결과 밝혀졌다. 金堂(배금당지)의 규모만 범어서 대웅전의 4배가 넘는 대사찰이었다. 만덕사 절터 앞에 터널을 통과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기 전 동아대학교 박물관(발굴책임자: 심봉근)의 3개월(1971년 8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에 걸친 지표 조사를 시작으로 1979년 2월 부산박물관이 넓게 흩어져있던 석탑, 불상대좌, 석등 등의 석재를 부산박물관(북원 책임자: 박경원)으로 옮겼고 3층 석탑(높이 3.35m)을 복원했다. 1차 발굴(발굴책임자: 하인수)은 1990년 10월 8일부터 1월 30일까지 55일간 이루어졌다. 금당지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팔각좌대석 및 연화문화대석을 비롯하여 若靑(아축)이라는 글이 음각된 기와조각과 함께 祇毗寺라는 글이 새겨진 기와 3점이 출토되면서 만덕사지는 부산지역 최대 불교유적으로 떠올랐다. 2차발굴(발굴책임자: 이해린)은 1996년 9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금당지 앞쪽 마당을 발굴했다. 기와 봉의 용마루 끝에 울리는 대형치미가 출토되면서 학계의 비상

한 관심을 끌었다. 날개, 몸통에 돌을새김으로 연꽃무늬(蓮花紋 연화문)를 장식한 만덕사지 출토 치미는 그 크기면에서 황룡사지 출토 치미에 버금가는 고려시대 치미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祇毗寺라는 글이 새겨진 기와와 함께 佛房(불방) 寶(보)라는 글이 새겨진 기와조각이 발굴되었다. 3차 발굴(발굴책임자: 홍보식), 조사면적은 1,650m2(500여평)로 2001년 9월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총 113일간 발굴했다. 금당지와 뒤편 건물을 이어주는 회랑터와 講堂(강당)으로 추정되는 건물터 2곳이 확인되었고 해우리금당지와 함께 長興廟(장흥고리)라는 글이 남아있는 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 1, 2차 발굴 때와 마찬가지로 毗寺(비사) 면(면) 祇毗寺 등 글을 새긴 기와조각과 함께 松壽寺(송선사) 이름이 새겨진 기와 4점이 출토됐다. 복원의 불씨가 살아나던 만덕사지의 존재가 잊혀질 무렵 2009년 3월 26일 촉대 모서리에 물이 막혀 배수공사를 하다가 옛건전 건축에서 쓰이던 봉황머리모양 장식, 치미 날개와 상단부분, 연꽃무늬 수막새 등과 함께 祇毗寺 글을 새긴 기와가 출토되면서 또 한번 주목을 받았다. 한국 최초의 불교사전에는 고려 30대 충정왕 3년(1351년) 경남 동래군 우이면 만덕리에 만덕사를 창건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사",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 28대 충혜왕의 서자 釋(석)기왕자가 머물렀던 절은 만덕사였다. 고려 31대 공민왕 때 석기를 받들어 추대하려던 음모세력의 주모자였던 강은충(康允忠)이 동래현령으로 좌천되었을 때 만덕사의 흔적을 지우고 기비사로 바꾸었음지도 모른다는 향토사학자들의 주장은 확인할 길 없는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았다. 만덕사지는 통일 신라 때의 평지 쌍탑 가람형식으로 고려초기에 국가적인 지원으로 건립된 사찰이며 조선시대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온 국사(國史)의 사찰이었음이 발굴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그러나 금당지 일부 분족 현재 만덕사 대웅전과 요사채 지역은 아직까지 발굴한 적이 없다. 발굴을 통하여 금당지와 관련된 또 다른 유적과 출토 유물을 확인한 후 복원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만덕사에서 1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기비(其比)골에서 발견된 송선사와 기비사 그리고 만덕사지의 미스터리라는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부산 불교 최대 유적 만덕사지는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World Best Global Leader Eu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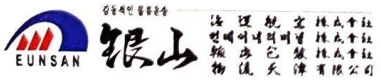
이 세상보다 더 큰 은산의 꿈



대표이사 양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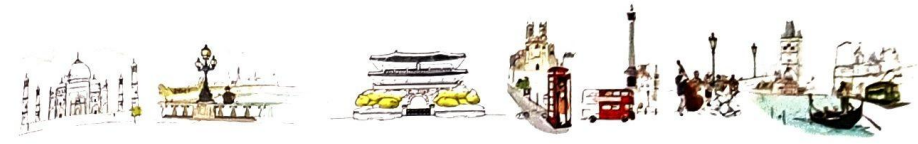


글로벌 종합물류 프론티어, 은산해운항공㈜



* AIR CARGO 해상화물 * AIRCARGO 항공화물 * WAREHOUSE 창고보관업 * HOUSEHOLD GOODS 이부화물 * ISLAND TRANSPORTATION 내륙운송
 * EXPORT PACKING SERVICE 수출 포장업 * LCL CONSOLIDATION SERVICE LCL 화물 * PROJECT CARGO, HEAVY/BULK CARGO 프로젝트/대형 화물 특수화물

* 서울시 중구 소공동 21번지 한컴빌딩 8층 Tel. 021772-9966 Fax. 021773-9969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7-5번지 해방빌딩 8층 Tel. 051041-9966 Fax. 051041-9969
 * * 알산 CY/CFS: 경남 창원시 아라동 870-3번지 Tel. 055333-9966 Fax. 055331-9969
 * * 한남 WACY/CFS: 부산시 김사구 송정동 1707-2번지 Tel. 051957-9966 Fax. 051957-9969
 * * 한남 WACY/CFS: 부산시 김사구 화진동 559번지 Tel. 051465-9996 Fax. 051465-9969
 * * 포항 WACY/CFS: 부산시 이곡동 425-1번지 Tel. 055362-9996 Fax. 055365-9969
 * * 중국 (천진) : 53-1, Weid Road, Heqi District, Tianjin, P.R.China Tel. 86-22-282-6300 Fax. 86-22-893-1188



내 생애 최고의 여행!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어도 됩니다

○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1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80 광주 062323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6-8424 강원 033242-0889
 충북 043231-5563 충남 041151-5465 전북 063287-6282 전남 061285-0832 경북 0541745-0750 경남 053212-1345-6 제주 064742-8881 KATA 021752-8882



新외식문화 - 광안리 해수욕장의 中心!!

GUESS WHO? 는

1991년 4월 9일 오픈한 전통있는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광안리 바닷가 테마거리 중앙에 있으며,
 광안대교가 다 보이는 야경과 이국적인 테라스가 있는 분위기 좋은
 부산의 명물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항상 타 업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프로근성을 가진 직원들과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 전통의 맛을 오래도록 지키며
 항상 시대에 걸맞는 멋진 맛집으로서 항상 손님의 눈높이에 맞는 음식과
 아늑한 휴 분위기가 일품입니다.
 항상 50대 이상 주차 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서
 맛과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GUESS WHO?

COFFEE & PIZZA FAMILY RESTAURANT

3F 노래찾는사람들	2F 日式 긴잔	1F GUESS WHO?	3F Song of Joy 노래주점, 노래연습장	1F 새뽕로하쿠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00-1번지
 Tel. 051)757-1213~4

